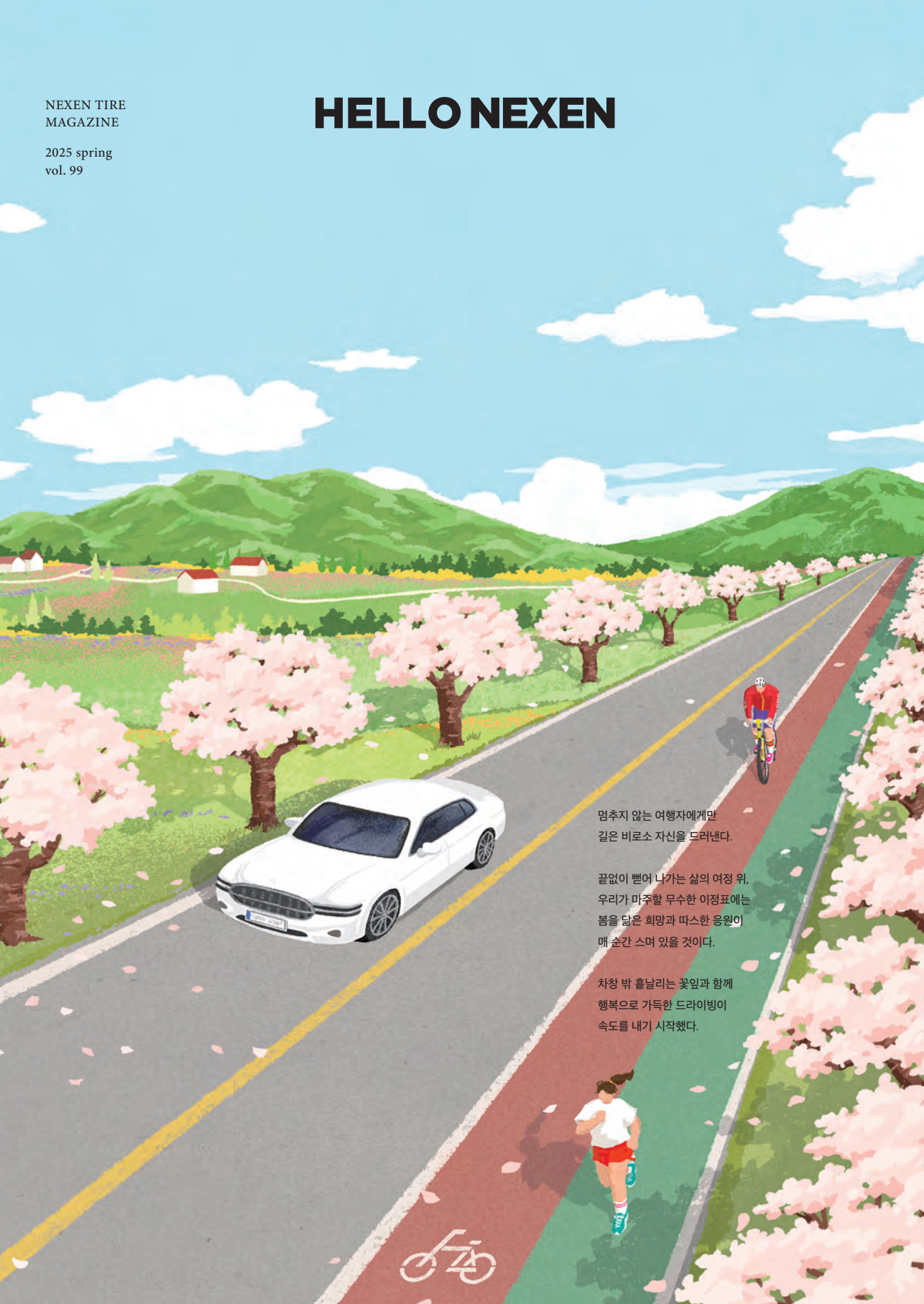
NEXEN TIRE
MAGAZINE

2025 spring
vol. 99

HELLO NEXEN



멈추지 않는 여행자에게만
길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끝없이 뻗어 나가는 삶의 여정 위,
우리가 마주할 무수한 이정표에는
봄을 닮은 희망과 따스한 응원이
매 순간 스며 있을 것이다.

차창 밖 흩날리는 꽃잎과 함께
행복으로 가득한 드라이빙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contents

www.nexentire.com

180°

과감한 질주

2025 spring
vol. 99

SPECIAL THEME

06 **SCIENCE**
180°드라이빙!
극한의 컨트롤에서 첨단 기술까지

10 **BEHIND**
180°휘어지는 '도로'
정상을 향한 질주의 이유

16 **TEAM**
'나'와 '우리'의 깊이를 배우는 시간
상품기획팀 버크만 진단

20 **ITEM**
동기부여를 실현시키는 필수 어플

헬로우 넥센

2025 SPRING (통권 99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5년 4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인재개발팀 전재갑 팀장, 김희진 책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FSC
www.fsc.org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59581

본 사보의 표지 및 내지는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STATION 1

24 **TIRE TECH**
오늘도 쉼 없이 달린다! 365일 고객 서비스 가동 중
타이어테크 남울산점

28 **CULTURE TRIP**
양산공장 임직원들과 함께한 신비한 가족 나들이
아르떼뮤지엄 부산

32 **문화多방**
'봄날'의 설렘!
넥센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것?

36 **밥 한끼 프로젝트**
소통 도시락이 배달됐어요
동료와의 한끼! 마음을 반찬 삼아~

40 **NEXEN CSR**
설원 위를 질주하는 따뜻한 가치
스노보드 통한 사회공헌 행사 진행

42 **내돈내산**
넥센인들의 상쾌한 봄을 위한 대청소 꿀템!
내돈내산 믿을만한 찐 후기

STATION 2

48 **미래참견시점**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 상업화에 성공할까?

52 **AI 정복하기**
핵심 단어로 'AI 업무력' 급상승

56 **철학 하는 타이어**
굴러가는 삶, 균형을 잃어도 괜찮아

60 **속마음 번역기**
동료가 건네는 긍정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들려줘!

64 **ISSUE 1**
'WE: reBORN' 2025년 시무식 개최

66 **ISSUE 2**
넥센타이어, 제6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6년 연속 결산 배당 및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68 **ISSUE 3**
신혼여행에서
부회장님을 만날 확률은?

70 **ISSUE 4**
도전, 창의, 협력이 만든
제3회 퍼플어워즈 시상식

72 **ISSUE 5**
따뜻한 사내 분위기를 만드는
'칭찬릴레이 캠페인'

74 **ISSUE 6**
넥센타이어와 함께한
'기안이쎄오'의 마지막 질주

76 **NEWS**





180°

과감한 질주

타이어는 언제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휴식이 있는 보금자리, 웃음이 모여 있는 약속 장소
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여행지가 될 수도 있는 그곳.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다음 목적지가 있습니다.
시시각각 180° 달라지는 환경에 맞춰 모두가 함께 변화를 주도했고,
어떤 길과 마주해도 과감하게 질주하며 위로,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보다 더 높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하나'가 되어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Text. 김홍재 과학칼럼니스트



180°

180° 드라이빙! 극한의 컨트롤에서 첨단 기술까지

달리기 위해 태어난 자동차가 좁은 도로에서 방향을 역전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떤 영화에선 자동차 후미를 미끄러트려 180° 회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엔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력을 활용하는 고도의 드라이빙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엔 타이어 바퀴 안에 첨단 장치를 장착해, 제자리에서도 누구나 쉽게 180° 회전하는 차량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옥수수밭에서 펼쳐진
심장 쫄깃한 추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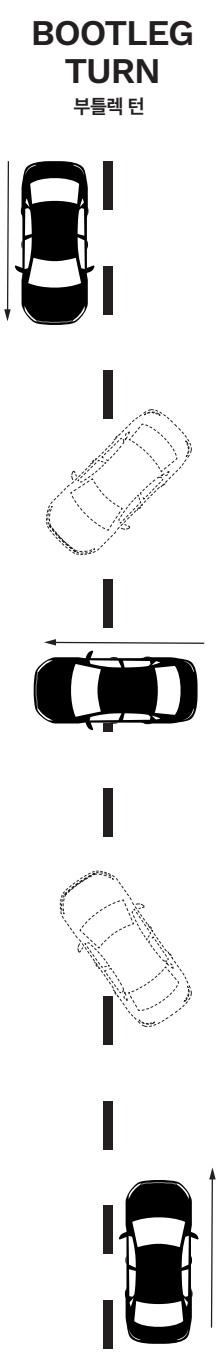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울창한 옥수수밭 사이를 가르는 비좁은 도로에서 숨 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신형 8기통 엔진을 장착한 경찰차가 거친 엔진음을 토해내며 속도를 높이자 도주하는 차를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경찰차가 턱밑까지 쫓아온 바로 그 순간! 도주 차가 날카로운 굉음을 내며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180°를 회전한다. 비좁은 도로에서 경찰차가 힘겹게 방향을 돌려봤지만, 쫓던 차는 이미 유유히 사라진 뒤였다.

자동차 추격전이 펼쳐지는 영화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추적자를 따돌리기 위해 자동차 후미를 미끄러트리는 방식으로 180°를 회전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2차선 이내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순식간에 180° 회전하는 기술을 흔히 '부틀렉 턴(bootleg turn)'이라 부른다. 요즘 부틀렉은 불법 복제한 음반을 가리키지만, 과거엔 밀주(密酒)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됐다.

미국에선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술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금주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술을 강제로 끊게 하기란 쉽지 않았으며, 몰래 술을 만드는 밀주가 성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미국 동중부 지역에선 풍부한 옥수수를 이용해 버번과 콘 위스키를 대량으로 만든다. 광활한 땅에서 밀주 제조 농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 터, 경찰은 밀주를 나르는 차량을 노리기로 한다. 반대로 밀주업자들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운전석 외 좌석을 치우고 출력을 높이는 터보차저(turbocharger)를 장착하고, 서스펜션을 개조한다. 거기에 틈만 나면 운전 기술을 연마하는데, 경찰과 밀주업자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발된 것이 바로 부틀렉 턴이라 전해진다.

옥수수밭 사이 도로에서 펼쳐지던 밀주업자들의 숨 막히는 레이스는 1948년, 나스카(NASCAR, National Association for Stock Car Auto Racing)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나스카 컵은 일반 승용차를 개조한 경주용 차로 속도를 겨루는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대회다. 그 대회에서 무려 50번이나 우승한 전설, '로버트 글렌 존슨 주니어'는 자동차 경주 역사상 처음으로 부틀렉 턴을 선보인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 역시 밀주업자의 아들이었다. 물론 그가 전문 레이서가 되기 전에 밀주를 운반했다는 행적이 경찰에 적발된 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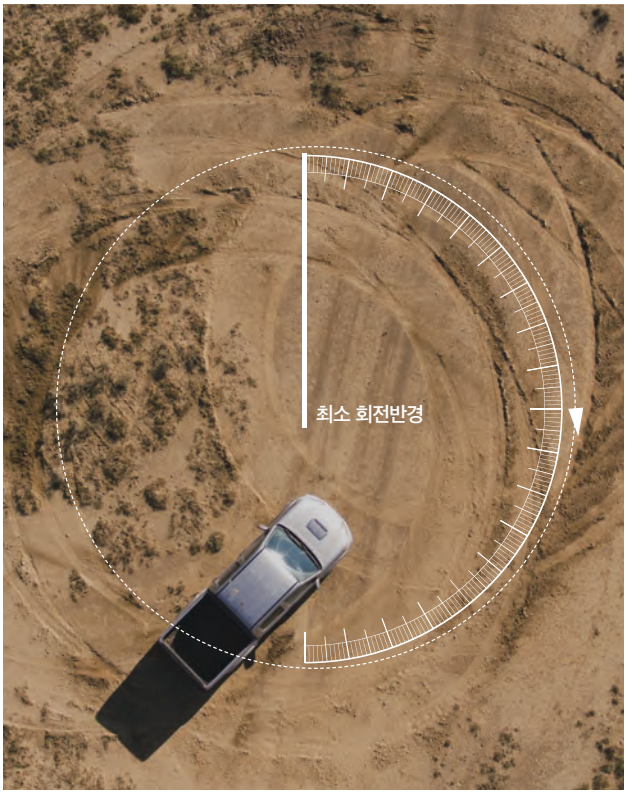


부틀렉 턴의 원리와 방법

부틀렉 턴은 수동 변속기가 달린 후륜구동 차량에서 가장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부틀렉 턴을 하려는 지점에서 2단 정도의 낮은 기어를 신속하게 넣은 후, 핸들을 회전하려는 방향으로 빠르게 돌린다. 기어를 낮추는 이유는 앞바퀴의 접지력을 높여 회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만 방향이 바뀌며, 뒷바퀴는 앞바퀴가 정한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 결과 회전할 때 뒷바퀴는 앞바퀴를 따라가면서도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는 구심력을 받게 된다. 뒷바퀴에 구심력이 작용하는 순간 핸드 브레이크로 뒷바퀴를 잠그면 타이어와 도로 표면 사이에 마찰이 낮아져 자동차 후미가 관성에 의해 회전 방향으로 앞부분보다 더 빠르게 미끄러진다. 완벽하게 180° 회전하는 순간에 풀 악셀을 밟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 부틀렉 턴이 완성된다.

말은 쉽지만 상당히 고난도 드라이빙 기술이며, 잘못 미끄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반도로에서 실행하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경우 반드시 드라이빙 센터 등 연습용 트랙을 찾도록 하자.



부틀렉 턴이 대단한 이유는 좁은 공간에서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보 운전자들이 주차를 어려워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동차 방향을 180° 돌리기 위해선 최소 3~4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진만으로 자동차를 180° 회전하려면 일정 넓이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최소한의 공간을 '최소 회전반경'이라 한다. 최소 회전반경은 자동차가 회전하면서 그리는 반원의 반지름인데,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인 축거(wheel base)와 앞바퀴를 가장 크게 돌렸을 때 각도인 최대 조향각으로 구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축거에 2를 곱하면 끝. 예를 들어 준중형차는 축거가 2.5m이기 때문에 회전할 때 최소 반지름이 5m이고, 중형차는 축거가 2.7m여서 최소 5.4m의 회전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로 폭이 3~3.5m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 3개 차선이 있어야 한 번에 회전할 수 있다.

최소 회전반경을 극복한
'제로턴'의 등장

자동차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치를 섀시 시스템(chassis system)이라 한다. 엔진과 변속기 등 동력 전달 장치부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기 위한 제동장치, 불규칙한 노면에서 승차감을 제공하는 서스펜션, 주행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섀시 시스템은 자동차의 주행, 안전, 승차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발명된 이래 섀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기어를 바꿔 전진하고 후진하며, 핸들을 돌려 앞바퀴 방향을 바꿔 좌우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섀시 시스템인 'e-코너 모듈(e-corner module)'이 등장해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코너 모듈은 앞서 얘기한 모든 섀시 시스템을 자동차의 타이어 바퀴 안에 집어넣는 인휠(in-wheel) 기술이다. 자동차의 심장이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일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전기 모터로 바뀌면서 실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e-코너 모듈에서는 바퀴 안에 인휠 모터를 기반으로 한 구동 시스템과 전동화된 제동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 조향 시스템 등이 모두 들어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제어되지만, 서로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출처: 현대모비스

e-코너 모듈은 엔진에서 발생한 힘을 바퀴 축에 전달하는 기계적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를 90°까지도 회전시킬 수 있다. 자동차는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므로, 좌우로 90°까지 조향할 수 있다는 얘기는 360°의 완벽한 자유도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e-코너 모듈을 장착한 자동차는 4바퀴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 바퀴를 90°로 꺾으면 옆으로 꽃게처럼 움직이는 크랩(crab) 주행이 가능하고, 4개의 바퀴를 적절한 각도로 놓고 전후진을 하면 제자리에서 180° 회전하는 '제로턴'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소 회전반경이라는 자동차의 족쇄는 완전히 사라지고, 누구나 부틀렉 턴처럼 좁은 공간에서 180°를 회전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된다.

e-코너 모듈은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타이어 바퀴 안에 섀시 시스템을 모두 집어넣은 덕분에 차량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져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상용화하기 위해선 무게와 제작 비용을 더 낮추고 기술적 완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행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Text. 편집실

180°휘어지는 '도로' 정상을 향한 질주의 이유

세계 몇몇 곳엔 아주 희귀한 도로가 있다. 180°가 넘는 Z자 '헤어핀 커브'를 그리며 산 정상으로 향하는 도로들. 사진만 봐도 아찔한 긴장감이 가슴에 꽂히지만, 매년 수십만 명이 그 도로 위를 질주한다. 좌와 우, 끝과 끝, 코너와 코너를 계속해서 오가며 서서히 그러나 반듯이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위험한 도로를 타고 산을 오르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스텔비오 패스의 헤어핀 코스를 오르는 라이더들

스텔비오 패스, 오감을 자극하는 도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스텔비오 패스(Stelvio Pass)는 그 이름만으로 전 세계 자동차, 오토바이, 사이클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 한다. 해발 2,757m에 있는 이 도로는 180°가 넘는 48개의 날카로운 헤어핀 커브와 가파른 절벽, 끝없이 이어지는 알프스 고산 풍경으로 라이더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 탑기어(TopGear)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빙 코스'로 선정된 스텔비오 패스는 산사태, 폭설 등의 재해를 피하고자 매년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만 개방된다. 그만큼 관람 기간은 짧지만, 환상적인 자연 경관과 위험천만한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그곳을 찾는 라이더 수는 적지 않다. 매년 8월의 마지막 토요일 또는 9월 첫 토요일에 열리는 '바이크 데이'에만 무려 1만여 명 이상의 라이더가 굽이치는 그 도로 위로 모인다.

변덕스러운 도로를 따라 정상에 올라서면 해발 3,000m 이상인 봉우리만 18개인 돌로미티 산맥(The Dolomite)이 한눈에 펼쳐지고, 맑은 날이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봉우리들까지 시야에 잡힌다. 운전대를 잡은 라이더들은 위험천만한 길을 달리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도전의 짜릿함과 성취감을 파노라마처럼 맛보며 위로, 더 위로 질주한다. 정상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게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다.

스텔비오 패스
STELVIO PASS



위치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길이
26km

커브 수
48개 (급격한 헤어핀)

도로 특성
드라이빙 & 라이딩에 최적화

주요 매력
도전과 스릴

풍경 특징
돌로미티 산맥 & 만년설

날씨 변화
빠르고 급격한 변화
(갑작스러운 안개 & 비)

개방 기간
5월 말~10월 초



하이 알파인 로드, 모두에게 열린 도로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최고봉인 그로스글로크너 산(Grossglockner Mt / 해발 3,798m)엔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 30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다. 바로 하이 알파인 로드(High Alpine Road). 무려 2천 년 전 이탈리아와 중부 유럽 간 소금 교역을 위해 사용되던 이 길은, 1935년에 현대적인 고산 도로로 재정비된다. 길이만 자그마치 48km. 그 위로 36개의 헤어핀 커브 길이 알프스 전경과 함께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놓여있다.

현재 하이 알파인 로드는 웅장한 대자연을 고스란히 담아낸 유럽 최고의 관광 명소다. 알프스에서 가장 긴 빙하인 파스테르체(Pasterze Glacier)가 쏟아내는 새하얀 절경과 운무, 그리고 그 밑으로 펼쳐진 푸른색 들판과 야생동물들까지. 스텔비오 패스보다 커브가 부드럽고, 도로 폭이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 속을 여행할 수 있는 하이 알파인 로드

넓어 여유롭게 알프스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10개의 전망대와 하이킹 가이드, 자연사부터 현대미술까지 볼 수 있는 6개의 박물관 및 전시관, 숙박업소, 레스토랑 등이 도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거대한 자연 테마파크를 즐기듯, 가볍고 차분한 마음으로 도로를 오를 수 있다.

하이 알파인 로드 또한 스텔비오 패스와 같은 이유로 5월 초부터 10월 말에만 문을 열지만, 매년 약 9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다. 삼삼오오 배낭을 둘러맨 여행객들과 휴가를 떠나온 가족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알프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 그곳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은 혼자보단 함께, 오래도록 남을 추억을 쌓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다.



강원도 정선군의 문치재 전경



문치재, 사계절이 담긴 K-도로

한국에도 수려한 헤어핀 도로가 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 숨겨진 명품 드라이빙 코스, 바로 '문치재'다. 고양산과 각희산, 곰목이재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에 둘러싸였고, 총길이는 1.5km다. 구불구불한 헤어핀 커브와 가파른 경사로 그리고 정상에서 펼쳐지는 탁 트인 풍경은 낯설지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문치재의 가장 큰 매력은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경험과 강원도의 장엄한 자연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30개 이상의 급커브가 이어지며, 길이 좁고 경사가 심해 스릴 넘치는 핸들링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원도의 웅장한 산맥이 한눈에 담긴다. 봄과 여름에는 광활한 푸른 빛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눈 덮인 설경이 장관을 이루며 다채롭게 변하는 한국적 자연 풍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스텔비오 패스와 하이 알파인 로드에서도 경험 못 하는 우리만의 색깔이며,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유럽을 거쳐 한국까지. 180° 커브를 넘나드는 도로로 정상를 향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하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으로 새로운 경험에 뛰어들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얻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나다운 개성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최고의 결과보다 그러한 가치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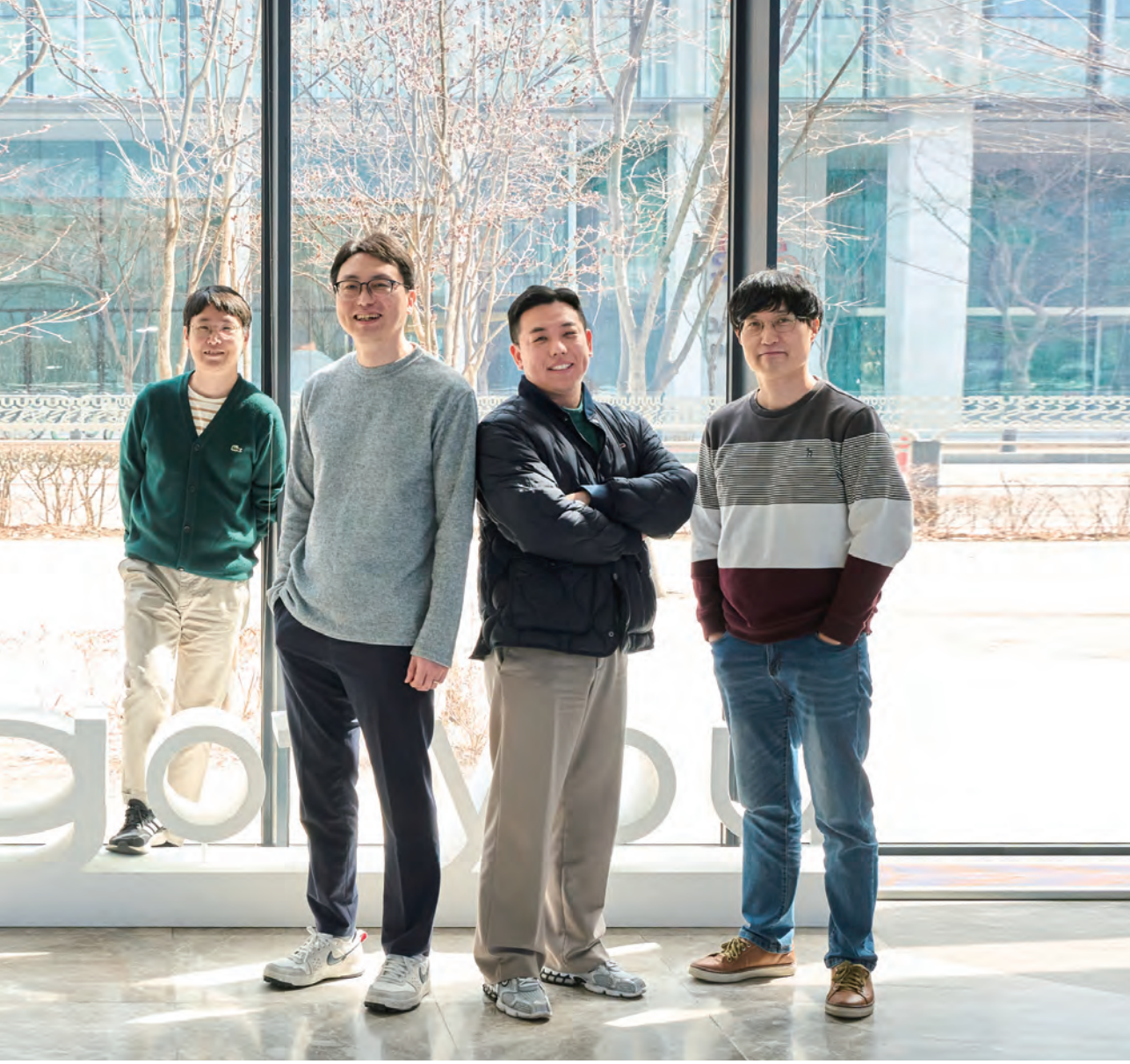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BIRKMAN



‘나’와 ‘우리’의 깊이를 배우는 시간
상품기획팀 버크만 진단

버크만 진단은 팀원들의 성향과 강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강력한 시장 대응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품기획팀이 그런 버크만 진단에 뛰어들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팀원 각자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팀워크를 보다 강화해 더욱 경고한 팀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다. 마음이 들뜨는 봄.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중심을 더욱 단단히 잡으려는 그들의 즐거운 버크만 진단 시간을 훔쳐보자.



‘다름’에서 찾는 존중의 실마리

팀 내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갈등 ‘해결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인간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성향과 접근 방식을 가진 팀원들이 함께 일할 때, 이들의 차이를 잘 조율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팀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본사 3층 회의실에 모인 일곱 명의 참여자는 각자의 대인관계 및 업무 방식에 대한 개인별 리포트를 앞에 두고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강연이 있기 전, ‘버크만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소통’이라는 주제로 298문항을 사전에 진단한 결과지다. 버크만 진단의 취지에 대한 강사의 설명에, 참여자들의 얼굴로 설렘과 기대감이 번졌다.







진단에 앞서 강사는 “버크만 진단은 단순히 표면적인 말이나 행동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다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숨은 욕구와 동기부여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동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버크만 진단은 흥미, 평소 행동, 욕구, 스트레스 행동, 일하는 방식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버크만 맵이 완성되며, 10명이 참여하면 10개, 1만 명이 참여하면 1만 개의 유형이 생성된다. 버크만 맵은 주로 사람과 소통하는 대인관계 방식을 다루고 자신에게 흥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파악할 수 있어, 개인의 내면적 욕구와 관심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해를 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

상품기획팀 팀원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니, [흥미], [평소 행동], [욕구]에서 다양한 분포도를 나타냈다. [흥미] 부문에서는 총점 73점을 기록한 가운데, 임범준 팀장이 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특히, 기술과 야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임범준 팀장은 “노트북이 고장 났을 때 직접 고치거나 캠핑을 좋아한다.”고 해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팀원들의 흥미를 고려한 소통 방식으로는 ‘단계적인 접근’, ‘실용적 결과 강조’, ‘시각적 이미지로 의견 공유’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흥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업무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며 흥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행동] 분석 결과로는 총 일곱 명 중 네 명이 ‘공감

적 Listener'에 해당한다고 나타났다. 나머지 팀원들은 결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에너자이저'와 사교적이고 유연한 '분위기 메이커', 신중하고 꾸준한 '모범생'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욕구]는 구성원이 바라는 태도와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주요 동기, 그리고 대우받고 싶은 태도와 환경을 포함한다.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즉시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팀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건강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소 행동]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나에게 없는 특성을 보완해 소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팀원들과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이후 팀원들은 업무 중 자신이 바라는 업무 환경에 대해 적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또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믿음과 신뢰가 더욱 두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Mini interview



임범준 팀장

버크만 진단을 통해 저와 팀원들의 성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상호 수석

팀원들 각자의 성향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상품기획팀의 더 멋진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민철 수석

가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말끔히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의 성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천광준 선임

상품기획팀에 온 지 3개월 정도 된 저로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팀원들의 성향과 업무 스타일을 자세히 알게 되어 앞으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지원 선임

팀원 개개인의 성향과 업무 스타일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환 선임

팀원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이 더 친밀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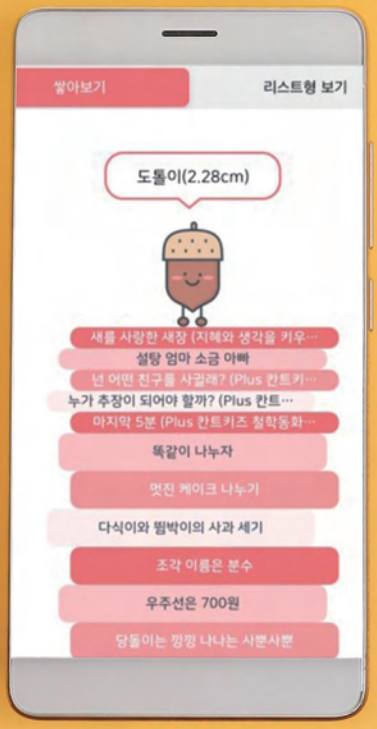


이승욱 사원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성향을 알게 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욕구와 성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기부여를 실현시키는 필수 어플

누구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 쇼츠 영상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의 그 다짐은 사라진 체 반복되는 일상으로 몸을 던지기 일쑤다. 바로 그 순간! '띠링~' 알람 소리로 우리를 멈춰 세워 동기부여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꾸준히 지속하게 독려해 줄 어플이 필요하다.



지루할 틈 없이 쌓이는 취향저격 독서 습관
북적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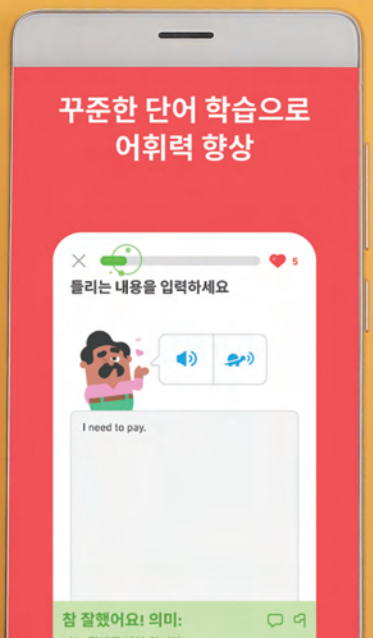


"나 한 달에 책 몇권 읽기가 목표야"라며 호언장담하지만,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일상에서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는 독서 습관!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독서 기록을 도와주는 어플, 북적북적이 있다면 호언장담도 꿈만은 아닐 것이다. **책을 읽으면 실제 책 높이를 반영해 쌓여 올라가는 시각적 이미지와 특정 높이에 도달하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수집욕과 목표 달성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은 귀여운 캐릭터들은 취향에 맞게 꾸밀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 재미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탄탄하다. 책을 읽은 기간과 평점, 메모를 기록해 독서 경험을 깔끔히 정리해 주고, 월별 독서량을 그래프로 분석해 독서 습관을 파악할 수도 있다. 더불어 SNS에 독서 기록도 공유할 수 있어 친구들과의 독서 소통도 가능하다.

트라우마를 깨트리는 언어 공부의 시작
듀오링고



우리가 언어 공부와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어려운 단어? 다른 문법? NO! 바로, 주입식 교육 덕분에 얻은 일명 '재미없어!' 트라우마다. 하지만 듀오링고는 그런 고정관념을 무너트리기에 탁월하다. **게임 요소를 활용한 학습 방식은 재미와 동기부여를 함께 제공하고, 짧고 간결한 레슨 구성은 틈틈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특히, 하루도 학습을 건너뛰지 않도록 독려하는 기능은 꾸준한 습관에 불을 지피기에 딱! 거기에 더해 친구들과의 경쟁으로 도전 의식에도 기름을 부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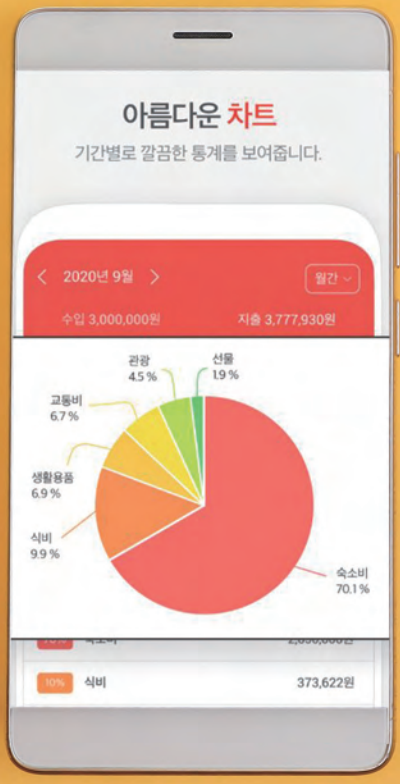


게임하듯 즐기는
일상 속 운동 동기부여

피크민 블룸

사용자는 걸음 수에 따라 '피크민'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를 수집·성장 시킬 수 있고, 꽃을 심어 가상의 꽃길도 만들 수 있다. 걷는 행위를 통해 모바일 속 세상과 연동되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AR 기능을 통해 피크민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몰입감을 극대화시킨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산책을 더욱 즐겁고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

피크민 블룸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의 걸음 수와 경로를 보여주며, 사진과 노트를 추가해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친구들과 함께 걸음 수를 경쟁하거나, 전 세계 어디든 지정된 위치로 피크민을 보내 아이템을 수집하는 등. 소셜 기능도 짜임새 있다. 이 앱은 건강한 걷기 습관을 형성하면서도, 게임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을 즐기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자산 늘리기의 첫걸음
올바른 소비 습관 만들기!

편한가계부

통장 잔고를 보다 보면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누가 내 돈을 훔치나?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범인은 바로 '나'! 편한가계부는 올바른 소비 습관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복식부기 기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자산과 연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기본. 자산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자산(예: 은행 계좌, 투자, 보험)을 통합 관리하여 전체 재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는 건 덤이다. 또한, 예산 설정 기능을 통해 월별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자산 증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멈추는 사람들도 음성 입력 및 SMS 자동 입력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지출을 기록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우선 다운로드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

STATION 1

TIRE TECH	CULTURE TRIP	문화多방
24	28	32

밥 한끼 프로젝트	**NEXEN CSR**	내돈내산
36	40	42

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고객을 생각하는 타이어테크 남울산점 이야기,
봄을 받아들이는 넥센인들의 방법과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 리스트,
소중한 동료와 나누는 특별한 점심시간까지 만나보세요.

더불어 스노보드를 통해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부터
겨울 끝! 봄을 준비하는 넥센인들의 내돈내산 대청소 꿀템까지.
읽다 보면 푸릇푸릇 미소가 번지는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Text. 편집실 **Photo.** 임동욱

오늘도 쉼 없이 달린다! 365일 고객 서비스 가동 중

타이어테크 남울산점



젊은 에너지와 성실함으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타이어테크 남울산점. 2024년 7월 오픈 이후 꾸준히 고객 유치를 위해 매월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며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다. 이주원 점장과 장범진 부장은 30대 중반의 젊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대리점이 다소 외진 곳에 있지만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지리적 이점보다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남울산점의 맨파워를 발휘하는 중이다.

(왼쪽부터) 장범진 부장, 이주원 점장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수!

타이어테크 남울산점은 울산석유화학단지와 공단들로 조성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주택이 없어 유동 인구가 적고, 공단에 기반을 둔 근로자들과 화물차량이 고정 고객층으로 두텁게 형성돼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고객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타이어 대리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에 오픈한 남울산점이 그 견고한 틈을 비집고 고객에게 눈도장을 찍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주원 점장은 남울산점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공업 단지 특성상 동일한 고객이 반복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방문 때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한 번 방문한 고객은 반드시 다시 오도록 만들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고객들의 생활 반경 또한 단지 내 정해진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입소문도 빠른 편이에요. 사소한 서비스와 고객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남울산점의 평판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차량 대부분이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 고객들에게 타이어 교체 및 구매이 있어 '경쟁력 있는 가격'은 첫 번째 고려 사항이다. 이주원 점장은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올라온 다른 대리점들의 가격 및 마케팅 등을 분석하며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 '남울산점에 오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고객 관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한, 남울산점은 무료 점검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나 위치 교환, 얼라이먼트 같은 기본 점검은 물론 펑크 수리도 무료로 제공한다. 매장이 고속도로 진입로에 근접해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역시 펑크 수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한 덕분에 부산과 온산에서부터 남울산점을 방문하는 장거리 고객도 생겨났다.



365일 성실함으로 이어가는 고객 감동

일반적으로 타이어 대리점의 경우 저녁 7~8시면 문을 닫는 반면, 남울산점은 10~11시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더 많은 고객 유치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늦은 밤, 자동차 혹은 타이어에 이상이 생겨 위급해진 고객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크다. 새벽에 걸려 온 전화에도 대리점으로 긴급 출동을 불사하는 이주원 점장! 고객을 향한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이란 점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고속도로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벽 3~4시에도 견인차를 운행하는 고객들의 연락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집에서 대리점까지 40분을 달려야 하지만, 지점에 도착해서 고객의 난처한 얼굴을 마주하면 '빨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울산점의 효능감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세심한 고객 관리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요."

야간 시간 운영뿐만 아니라 남울산점은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 30대의 젊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해도, 주인의식을 가진 장범진 부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스케줄이다. 직원과 점장의 관계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한편으로 장 부장에게 이주원 점장은 동갑내기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주원 점장은 지시하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

요. 가령, 매장 청소 같은 일도 직접 함으로써 직원이 자연스럽게 함께 하도록 유도하죠. 또한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난처한 상황에도 항상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아요.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하며 마인드컨트롤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울산점의 운영 철학은 '고객 중심'에 있다. 단순한 타이어 판매를 넘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고객층인 트럭 운전자의 승차감과 안전을 위한 제품을 고민하고, 충성 고객이 선호하는 모델은 미리 준비해 둔다. 이주원 점장은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다가 만족해서 다시 오는 곳,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남울산점이 신뢰받는 최고의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몫의 2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타이어테크 남울산점
울산 남구 산업로99 / 0507-1321-7832





봄철 차량 및 타이어 관리법 Check! Check!



꽃가루 황사 대비! 와이퍼와 워셔액 체크하기
와이퍼를 작동시켜 보고, 소음이 심하거나 유리에 줄이 남으면 교체 시기! 워셔액이 부족하면 물 대신 워셔액 전용 제품 보충.

TIP 봄철에는 꽃가루, 황사가 많아 워셔액을 충분히 채워두는 것이 중요.



차량 내외부 필터 체크 (에어컨 & 공기정화 필터)
에어컨을 켜고 냄새가 심하면 필터 교체 시기! 대시보드 하단이나 엔진룸 안쪽 필터 박스를 열어 필터 상태 확인하고 먼지가 심하면 교체, 깨끗하면 살짝 털어서 사용 가능

TIP 황사, 꽃가루가 심한 봄철에는 공기정화 필터를 3~6개월마다 점검 & 교체!



봄철 오르는 기온! 적정 공기압 체크
기온이 올라가면서 공기압이 자연스럽게 증가! 너무 높아지면 중앙만 닳아 제동 성능 저하. 운전석 문 안쪽에 적정 공기압 정보 확인

TIP 권장 공기압보다 2~3psi 정도 낮춰 조정하면, 기온 상승에 따른 과다 팽창 방지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양산공장 임직원들과 함께한 신비한 가족 나들이

아르떼뮤지엄 부산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세상이 서서히 녹듯, 요지부동이던 우리 일상도 슬며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봄이 왔다. 이불 속보단 햇빛 넉넉한 밖으로 몸이 이끌리고, 휴대폰 속보단 오색찬란하게 피어난 생명들에게 시선을 던지는 '나들이'가 간절해지는 계절. 양산공장 임직원과 가족들이 첫 봄비가 내리던 지난 3월 중순, <아르떼뮤지엄 부산>으로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 빛으로 빚어낸 찬란하고 아름다운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선보이는 그곳에서 임직원들은 어떤 즐거움을 만끽했을까.







신비로움 위로 피어나는 웃음들

아르떼뮤지엄은 거울 반사, 음향, 향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에게 시각, 청각, 후각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대규모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제주에서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현재는 부산과 강릉, 여수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에 방문한 부산 영도 전시장은 화려함을 넘어 신비함으로 임직원들을 압도했다. 초자연적 경험을 할 수 있는 16개의 테마와 부부, 연인, 자녀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는 체험 요소까지. 주말을 틈타 나들이 온 임직원들에게 감탄과 맑은 미소를 싹 틔우기에 충분했다.

"최근에 날씨가 풀려서 한번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때마침 회사에서 좋은 이벤트를 열어줘서 오게 됐습니다. 이런 전시는 처음인데, 많이 놀랍네요. 나름 공간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신비한 전시라 어지럽습니다. (웃음)"

4m가 훌쩍 넘는 높은 천장과 바닥 사이로 꽉 채워진 거대 스크린으로 빛이 쏟아지고, 유리를 활용해 착시와 신비함을 넘나드는 공간 구성은 말 그대로 어지러울 만큼 독특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전시 문화의 틀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으로 상식의 틀을 깨고, 즐거운 영감을 심어 준 것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16개의 기쁨

전시장을 들어서면 허공에서 순환하는 원형의 모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테마 작품, 'CIRCLE'이 가장 먼저 임직원 가족을 반겼다. 그리고 수많은 폭포가 쏟아지는 초현실 테마 'WATERFALL INFINITE'가 나오고, 그다음은 다양한 색의 장미가 흩날리는 영상과 함께 실제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는 'FLOWER ROSE'까지 총 16개의 테마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그중에서 특히 걸음을 멈추게 하는 테마는 단연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요소가 가미된 것들이다.

"언제 한번 가족들과 오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아트 전

시라 저희 부부가 문화를 즐기기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볼거리뿐 아니라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향기도 맡고,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체험 요소도 있어 아이들이 더 신난 것 같아요.(웃음) 제주도나 강릉은 또 다르다고 들었는데, 가족들과 그쪽으로 여행 가게 되면 그 지역 아르떼뮤지엄도 들릴 것 같아요."

은은한 빗줄기가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피부로 찬 기운을 느끼는 테마부터 소용돌이치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테마를 지나면, 웬 크레파스와 종이가 놓인 커다란 테이블이 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실시간 3D 모션 캐릭터로 만들어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테마가 있기 때문! 임직원 자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그마한 손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채색하고, 화면에 나온 그 그림을 확인하며 온전히 전시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Family interview



최상현 사원 / Mold설계팀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하면 좋을 것 같아 신청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전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 놀랍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해서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도형 사원 (YP)설비보전1파트

가족들과 이색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 더욱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경 사원 / (YP)원동파트

봄을 맞아 육아에 지친 아내와 8개월 된 우리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봄날’의 설렘!
넥센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것?

설문기간: 3월 10일~12일
참여자: 188명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순간은?

뚱뚱이 패딩은 이제 안녕~ ‘가벼워지는 옷’ 43%

피부로 느끼는 살랑살랑 봄바람은 시대불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감각! 옷이 가벼워지는 만큼 활동하기도 편한 건 덤!



알고리즘에 쏟아지는 봄맞이 ‘신상템 쇼핑’ 9%

짝꿍이랑 벚꽃놀이 가야지? ‘스멀스멀 연애 세포’ 11%

몸은 회사, 마음은 이미 여행 중! ‘역마살 발동 시작’ 18%

기타 19%

코가 간질간질 꽃가루 알레르기 시작...!!!
허은영

어~? 몸에 이게 뭐지? 살 오르는 소리가 들려
김병희

창녕공장 식당 앞 화단에 튤립이 피었을 때
이호섭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김형율

겨울 끝! 따뜻한 봄날
어디로 가고 싶나요?

기분 전환을 위한 일상 탈출
'근교 피크닉' 52%

넥센인 모두가 골고루 선호!
겨울 동안 답답했던 마음은
똑같나 봐요~?



밤공기+취기=낭만 그 자체
'야장 핫플레이스' 16%

한낮의 화사한 봄도 좋지만,
시원하고 포근한 밤도 빼놓을
수없는 봄의 별미라는 사실!

지긋지긋 흰 눈은 그…그만!
'오색찬란 꽃놀이' 13%

나가면 고생, 봄이 오나 가을 오나
'침대 위, 이불 밑' 6%

기타 13%

한강에서 돗자리 펴고 누워있기
김형중

나무 심으러 서울 식물원에
가고 싶어요!!
조은혜

무조건 해외여행! 가보자 세계로~
문진석

경주 불국사에 '겹벚꽃 나들이'
송민석



생각만 해도 신나는 나만의 봄 계획은?

다투기도 하지만, 가장 행복하게 남는 '가족여행' 39%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가족여행'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보단 가족이 더 소중해지는 건 자연의 순리! 함께 쌓아 가는 추억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넥센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액티비티! 일 만큼이나 휴식에도 진심인 숨은 액티비티 '취미 부자'들도 많나봐요~

러닝? 캠핑? 다 드루와! '액티비티 도전' 26%



이불 빨래부터 인테리어 변화까지 '집 대청소' 12%

공원, 강 등 자연에서 즐기는 유유자적 '독서 타임' 11%



기타 12%

맛있는 간식들을 잔뜩 싣고 떠나는 나 홀로 힐링 여행
김건호

프리다이빙 도전!
조연정

큰 고기 잡으러 '낚시'
김현수

제철 음식 봄나물 먹으러 '맛집 탐방'
서용준

리틀 포레스트



정중식

농촌의 사계절 풍경이
인상적이고 봄꽃을 보는 내내
꽃향기가 느껴지는 영화

건축학개론



김강일

봄이 오기 시작하는 3월이면
새내기 대학 생활이 생각납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풋풋한
대학 생활 모습이 떠올라
다시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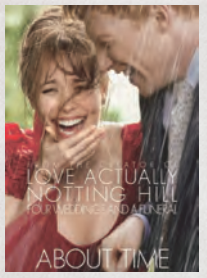
꽃피는 봄이 오면



김재영

꽃피는 봄이 오면서 일어나는
변화와 음악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마음이
따뜻해 지는 영화

어바웃 타임



장윤정

나긋나긋한 편안한 느낌을
주고, 꽃처럼 몽글몽글하기도
한 이 영화는 봄의 나른한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4월 이야기



정윤환

약간 설레면서도 헛헛하면서도
풋풋한 봄의 정취가 잘 느껴지는
영화라 추천합니다.

넥센인들이 뽑은 감성 폭발 봄 영화 추천



아바타



김대현

영상미는 감탄사가 나오고,
자연의 색채는 힐링 그
자체가 되는 영화

라라랜드



손민필

남자주인공이 피아노 치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꿈을 좇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려내서, 봄날의 감성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봄날은 간다



이재엽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란
대사가 먼저 떠오르는 영화.
사랑도 삶도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보니 알게 되더라.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공감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보고픈 영화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진예진

초등학생 치히로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의젓하게 본인의
일을 해내는데, 나도 의젓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영화의 배경이
파릇한 풀과 넓은 바다가
주를 이루어서 다가올 봄과
여름을 기대하게 합니다.

비긴 어게인



이의송

감미로운 음악과 뉴욕의
싱그러운 풍경이 봄과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그린
이야기라 봄처럼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다시 찾게 돼요.

소통 도시락이 배달됐어요
동료와의 한끼! 마음을 반찬 삼아~

사보 <헬로우 넥센>이 두 번째 도시락 배달에 나섰습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동료와 특별한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손수 사연을 보내준 넥센인들에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프리미엄 도시락을 전달했어요. 수다로 꽃 피운 봄날의 점심 풍경을 만나볼까요?

톰과 제리 같은 사이?!
영양 한끼로 더 돈독해 졌어요~



입사 동기인 유상효 파트장이 제 한끼 파트너예요. 양산에서부터 창녕까지 같은 부서에서 쭉 같이 해온 동료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이벤트에 신청했어요. 입사 동기이자 같은 팀에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며 우정을 쌓아온 형이기도 해요. 현재도 같은 사택에서 살고 있고, 회사 안에서도 밖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끼 프로젝트라는 신선한 이벤트를 통해 인생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상의 활력이 되었고, 업무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둘이 서로 배려하며 잘 생활하고 싶습니다.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한끼 이벤트 제안은 정말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어요. 일상의 신선한 충격이 기분 좋더라고요. 항상 저를 잘 챙겨주는 박철진 수석! 우리가 톰과 제리 같은 존재지만 또 엄청 의지하고 있잖아요. 어느덧 알고 지낸 지 18년이 되었는데 큰(?) 다툼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영양 가득한 점심이 몸에도, 우리 관계에도 좋은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속, 등대 같은 선배님
앞으로도 저랑 쭉~ 함께 해요



밥 한끼 파트너
(YP)생산기술파트
정해철 수석

이벤트 신청자
(YP)생산기술파트
양현진 책임

저의 한끼 파트너는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 중인 정해철 수석입니다. 예전에 선배님께서 개발팀에 계실 때부터 협업했던 사이예요. 지금은 같은 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면 일! 회식이면 회식!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분이세요~ 언제나 후배에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선배님이세요. 양산으로 전보를 와서 초기에 적응하는 데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의지할 수 있는 선배님이 있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신입사원 때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용기가 없어 마음속으로만 죄송함을 품고 있었어요. 10년 후, 같은 팀에서 뵙게 되었고, 저의 지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는데 흔쾌히 받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별한 이벤트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쭉~~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양현진 책임~ 평소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는 후배인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큰 일인가 걱정부터 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연히 얘기하다가 같은 고등학교 후배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선배님" 하면서 항상 친근하게 다가와 줘서 나에게도 양현진 책임은 특별한 후배예요. 덕분에 맛있고 풍성한 점심을 먹었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조만간 내가 한턱 쏠게요~

나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존재
대학 동기에서 직장 동료로~







밥 한끼 파트너인 최영수 연구원은 저와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입니다. 대학교에서 시작된 인연이 회사까지 이어졌어요. 회사에 함께 다닌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밥 한끼 같이 한 적이 없더라고요. 대학 때는 질리도록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녔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서로 바빠서 그런지 여유가 없었나 봐요. 예전을 떠올리면 친구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술 먹고 장난치다가 제가 영수 얼굴을 발로 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찍힌 동영상을 보면 아직도 웃음을 참을 수 없어요.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합니다. "영수야~ 미안했다.^^" 처음으로 회사라는 공간에서 둘이 밥을 먹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장인 모드를 잠시 끄고, 친구 모드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색하게 사진 찍으면서 또 한참을 깔깔거렸네요.

"영수야~ 사실 처음에 너가 회사에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싫었어.^^ 내 온갖 흑역사와 사적인 모습을 알고 있는 존재가 회사로 등판한다는 것 자체가 후들거리는 일이잖아. 하지만 막상 같이 다녀보니 학교 다닐 때와는 또 다른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다. 회사에 친구가 있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 앞으로도 같이 잘 다녀보자~"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우재야~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래도 대학 동기와 회사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지! 대학 동기 중에서도 가까운 사이였던 우재가 회사 선배로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얼마 전에 같이 글램핑 갔을 때, 네가 게임에 져서 벌칙으로 설거지했잖아. 채소 때문에 막힌 싱크대를 뚫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갑자기 난다. 앞으로도 우리 웃을 일 많이 만들어 보자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동료와 밥 한끼로 특별한 추억 쌓기



서혜정 책임은 동기 중에 유일한 동갑 친구입니다! 회사 동료를 넘어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친구이기도 해요. 이번 3월부터 혜정 책임과 취미로 뜨개질 수업도 함께 듣는데, 뜨개질 수업 전에 식사하며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외적으로도 자주 식사는 하지만,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회사 안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는 경험으로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혜정 책임은 넥센타이어가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사를 통해 또 한 번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혜진 책임과는 신입사원 입문 교육 때 같은 방을 쓰면서 친해졌어요. 저는 창녕, 혜진 책임은 양산에 근무해서 근무지는 달랐지만, 동갑이라 유난히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체코에서 근무할 당시엔 혜진 책임이 휴가를 쓰고 체코에 와서 일주일 가까이 함께 여행하며 보냈더니 더더욱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마곡에서 같이 근무하며,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의지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뜨개질 수업 전 간단하게 김밥 같은 걸로 때우려고 했는데, 한끼 프로젝트 이벤트 덕분에 든든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Text. 편집실 **Photo.**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설원 위를 질주하는 따뜻한 가치
스노보드 통한 사회공헌 행사 진행

하얀 설원 위를 시원하게 질주하는 스노보드는 겨울을 가장 매력적으로 즐기는 방법이다. 하지만 장비와 환경의 제약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 스노보드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넥센타이어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회공헌 행사를 통해, 스노보드 꿈나무들에게는 희망을,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한 것이다.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 아카데미', '넥센 행복나눔 스노보드 캠프',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멘토링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스노보드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다.

특히, 2월 2일부터 양일간 평창의 아름다운 설원에서 펼쳐진 아카데미와 캠프는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들이 직접 강습에 나서며, 참가한 유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도 했다. 어린이 대상 캠프는 오픈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하니, 행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22년 알파인 스노보드팀을 창단하며 동계 스포츠 지원에 앞장서 온 넥센타이어는,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스키인의 날'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스노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행보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셈이다.

단순한 로고 노출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구하는 넥센타이어. 스포츠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진심이 느껴진다. 그런 마음을 담아 진행했던 이번 사회공헌 행사는 스노보드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하며, 그 행보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싶다.



Text. 편집실

넥센인들의 상쾌한 봄을 위한 대청소 꿀템! 내돈내산 믿을만한 찐 후기

따뜻한 봄날씨가 돌아왔으니 이제 두툼한 옷과 이불을 정리하고 겨울 동안 쌓여 있던 먼지들을 청소할 시기가 돌아왔다! 자타공인 청소 달인 넥센인들의 대청소 노하우가 담긴 꿀템들을 살펴보자.



REVIEW

청소기는 역시 POWER!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YP환경안전팀 안혜진 사원



★ 여과 필터는 분리 후 물세척도 가능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침구 청소기 (MJCMY01DY)
#대륙의 실수 #갓성비

이번 겨울 동안 너무 추워서 환기를 안 하고 살았더니 잠만 자는 안방 바닥에 먼지가 뭉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침대에 먼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결론을 혼자 내리고 '샤오미 미지아 침구 청소기 1세대'를 내돈내산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짝 무겁고 유선이라 침구 청소할 때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강력한 성능과 엄청난 가성비가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2~3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샤오미 침구 청소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POINT 1. 강한 흡입력

12000Pa 고성능 모터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은 먼지, 머리카락,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흡입합니다.

POINT 2. 고주파 클리닝

브러쉬가 고속회전하는 시스템으로 넓은 면적을 두드려주고, 전동 부러쉬는 분당 2,300회 회전하며 침구 손상 없이 숨어있는 먼지까지 깔끔하게 청소해 줍니다.

POINT 3. 50℃ 열풍 습기 제거

통풍구에서 50℃ 열풍이 나와 습기를 건조해줘서 침구를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줍니다.

REVIEW

빗질을 했는데요,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CP)전기계 진명수 조장



★ 소음을 무서워하는 강아지도 완벽 적응!

럽마이펫 강아지 진공 미용기

#다양한_구성

요즘 반려견을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털 관리죠. 특히 털이 많이 빠지는 계절에는 집 안 곳곳에 털이 쌓여 청소가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럽마이펫 강아지 진공 미용기'입니다. 소음에 민감한 강아지를 고려한 듯 저소음 설계가 되어있어 좋았고(기존 청소기보다 확실히 덜 무서워했어요 ㅎㅎ) 흡입과 브러쉬 기능을 장착해 강아지 털을 빗겨주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처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약간 필요했지만 몇 번 쓰다 보니 오히려 빗질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빗질과 청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보니 확실히 주변에 날리는 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답니다. 특히 소파나 카펫에 붙은 털까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또한 다양한 브러쉬 팁을 제공하여 장모, 단모 강아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먼지통이 쉽게 분리되어 아주 편리하답니다. 문틀 청소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일석이조입니다!

REVIEW

집 안 청소의 끝판왕! 내 사랑 돌돌이

마곡기업문화팀 유재훈 책임



★ 한 장씩 떼기 쉬운 사선형 스티커 형태!

무인양품 마니아인 저는, 집 안 곳곳에 무인양품 소품들로 제 애정을 가득 채워 놓고 있답니다. 시계, 벽걸이 CD플레이어, 찬장, 의자, 책상, 책장, 미니 가습기 등등... 제품 특유의 실용성과 깔끔함이 매력적인데요. 중에서도 제가 아끼는 Best는 단연! 내 사랑 돌.돌.이입니다.

청소기만큼 흡입력은 없지만, 닿지 않는 구석까지 든든하게 책임져 주는 최애템이랍니다. 특히, 이 친구는 침대에서의 존재감이 가장 뿜뿜인데요. 몇 번 슥삭슥삭 하면 침대가 정말 깔끔해집니다. 자는 공간이 깨끗해야 잠도 쾌적하게 자지 않겠어요? (자고 일어난 뒤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건 안 비밀)

또한, 몇 번을 밀어도 먼지가 잘 붙을 정도로 접착력이 우수합니다. 돌돌이를 밀면서 청소하면 제 마음도 뭔가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제 최애템 중 하나인 무인양품 돌돌이를 강추합니다! 사용하는 순간 청소가 재밌어지거든요!

STATION 2

미래참견시점 48

AI 정복하기 52

철학하는 타이어 56

속마음 번역기 60
ISSUE 64
NEWS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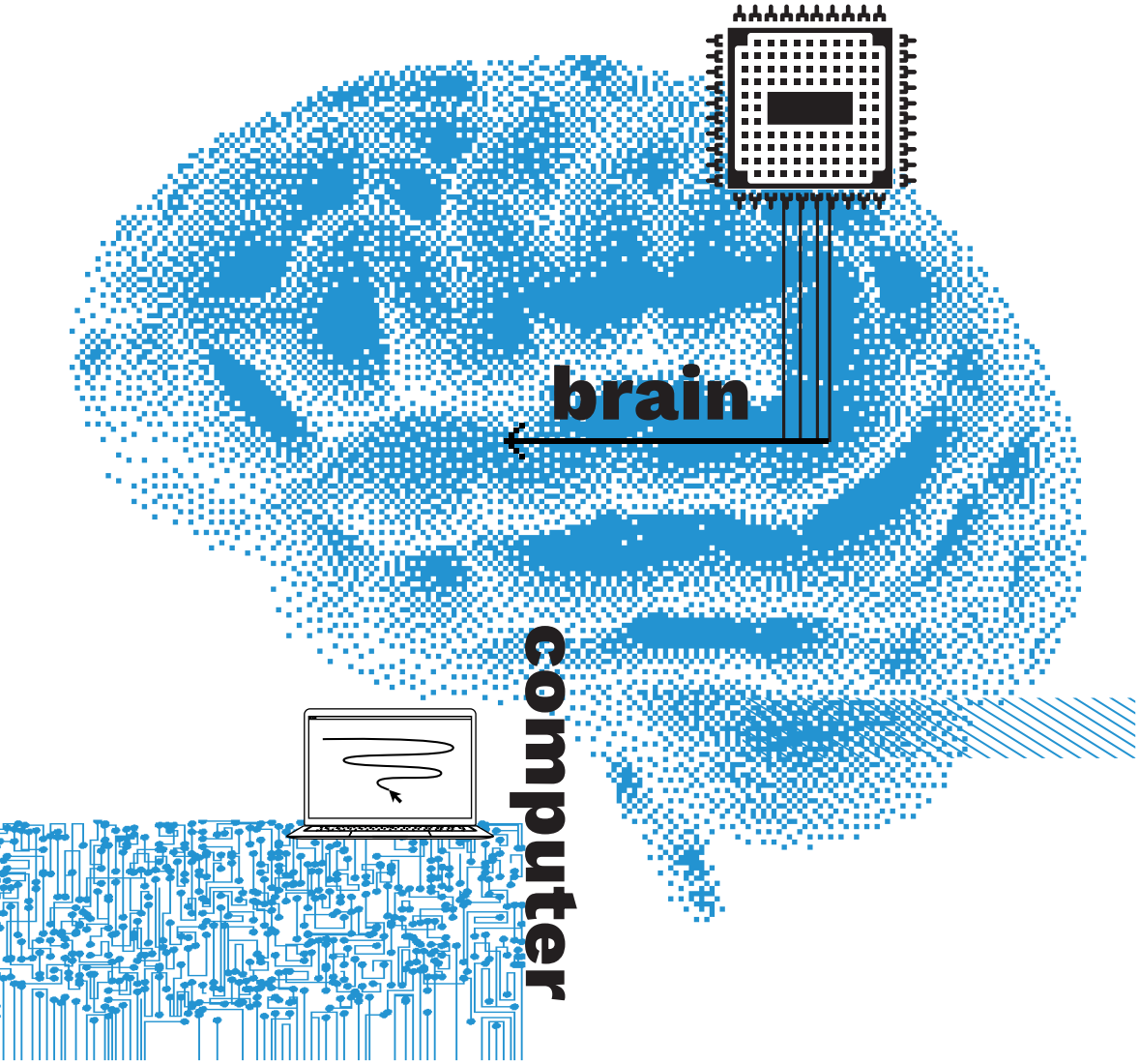
새싹만 자라나는 계절이 아닙니다. 넥센인들의 삶에도 새로운 영감을 심어
한층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과 인문학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의 상용화 가능성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한층 더 실용적으로 AI를 다루는 방법을 탐구해 보세요.

나아가 안정적인 주행을 위한 네 바퀴의 균형처럼,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방법과 동료가 하는 긍정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혼여행에서 특별한 인물을
만난 사연과 넥센타이어를 찾은 기안84의 유쾌했던 현장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 콘텐츠 제공 : MIT Technology Review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 상업화에 성공할까?

일론 머스크가 세운 뇌-인터페이스 회사 '뉴럴링크'의 움직임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는 올해부터 실험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10년 안엔 수백만 명의 뇌에 장치를 이식할 거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 그런 거침없는 행보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또 다른 쪽에선 희망찬 미래를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이는 일론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새로운 자유의 시작

놀랜드 아르보(Noland Arbaugh)라는 청년은 2024년 11월 자기 집에서 3일 연속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라이브 방송은 근교 여행, 비디오 게임, 모친과의 만남 등 흔한 라이브 방송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전형적인 내용이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르보가 전신마비라는 점. 그의 뇌에는 전극이 연결된 전선이 이식돼 있었고, 이를 통해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메뉴를 클릭할 수 있었다. 2024년 그는 일론 머스크의 뇌-인터페이스 회사인 뉴럴링크와 협력하는 신경외과 의사들로부터 'N1'이라고 불리는 '뇌 임플란트' 장치를 이식받았기 때문이다.

뉴런의 신호를 감지해 컴퓨터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년 전에 실험으로 입증됐다. 하지만 아르보의 라이브 방송은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게임을 즐기는 등의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보여줬다. 뉴럴링크는 이러한 미래를 '디지털 자유(digital freedom)'라고 불렀다.

하지만 'N1'은 아직 상용화된 제품은 아니다. 현재 관련 연구들은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아직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개선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점점 높아지는 연구 속도

올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임플란트 장치를 이식받을까?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 8월 그는 X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몇 년 안에 수백 명, 5년 안에 수만 명, 10년 안에 수백만 명이 뉴럴링크의 장치를 이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게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그의 계획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새로운 기기를 환자에게 처음 이식하는 연구를 진행할 땐, 문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들 사이에 수개월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그래서 뉴럴링크도 현재까진 3명에게 밖에 실험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연구만 놓고 보면 그가 말한 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장치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없다면 이식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 뉴럴링크는 미국 임상시험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지원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캐나다에서도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을 통해 뉴럴링크에 대한 낙관적인 주장을 꾸준히 하지만, 상업화를 위한 뚜렷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뚜렷한 발전, 흐릿한 검증

뉴럴링크가 뇌-인터페이스 장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선 최종 설계를 확정한 이후 20에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 1~2년이 걸릴 수 있는데, 뉴럴링크는 아직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바는 없다. 하지만 뉴럴링크는 전극의 수를 늘리거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등 장치에 꾸준한 변화를 주고 있다. 최근 머스크는 다음 인체 실험에선 "업그레이드된 뉴럴링크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뉴럴링크는 이 장치를 이식하기 위한 수술용 로봇, 일명 'R1' 또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을 통해 이식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표다. 이러한 계획은 부분적으로 향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임플란트 장치를 이식받을 것이라는 머스크의 예측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만한 인원에게 일일이 수술을 하기 위한 의사 수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숨길 수 없는 허점

그렇다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아르보의 마우스 컨트롤 능력은 얼마나 좋을까? 뉴럴링크의 주장에 따르면 움직이는 목표를 빠르게 클릭하는 게임 '웹그리드(Webgrid)'를 통해 측정한 결과, 일반인의 기록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해당 게임은 마우스 클릭 속도를 초당 비트로 변환하는데, 일반인의 평균 기록이 초당 10비트라면 아르보는 9비트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에 개발됐던 장치들보다 무려 두 배나 빠른 기록이다.

하지만 아르보는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의 '모델'이 오래되어 마우스 컨트롤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생각한 신체 움직임이 마우스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불평이었다. 이 모델은 수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 성능이 약간씩 저하되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선 45분 이상 일련의 재활을 해야 한다. 이렇듯 두뇌 신호를 받아 마우스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저하는 뉴럴링크가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분야로, 꾸준한 실험과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놀랜드 아르보가 X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잠시 멈추고 뇌 임플란트를 재보정하고 있다.
@MODDEDQUAD VIA X



뉴럴링크 시설과 실험실 앞에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취재하는 언론

규제와의 전쟁

뉴럴링크는 기자, 동물 권리 운동가,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ission)의 사기 조사관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조사를 받고 있다. 실험동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었는지, 임플란트를 사람에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꾸준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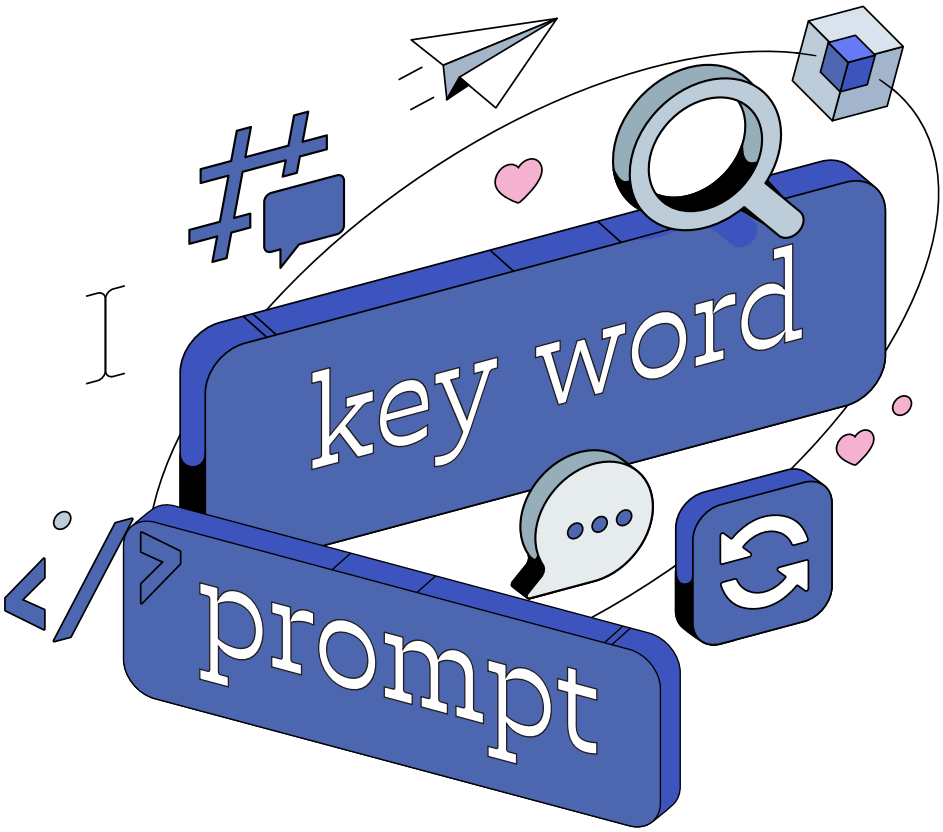
반면, 그 와중에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의 새 부서인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되었다. 머스크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무의미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와 관련된 일부 정부 기관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과학 기술을 다루는 글로벌 기업으로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얻은 것이다.

뇌 임플란트를 연구하는 회사는 뉴럴링크뿐만은 아니다. 싱크론(Synchron), 파라드로믹스(Paradromics) 등등. 시장이 이대로 확장한다면 AI가 그랬듯, 뇌 임플란트도 가까운 미래에 상업화를 이루지 않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진 미지수지만, 지금보다 뚜렷한 검증과 안정적인 실험을 거쳐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류를 발전시켜 주길 바랄 뿐이다.

Text.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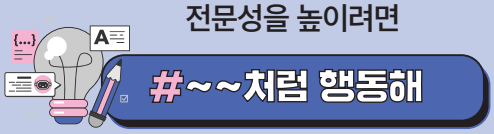
핵심 단어로 ‘AI 업무력’ 급상승

키워드의 기술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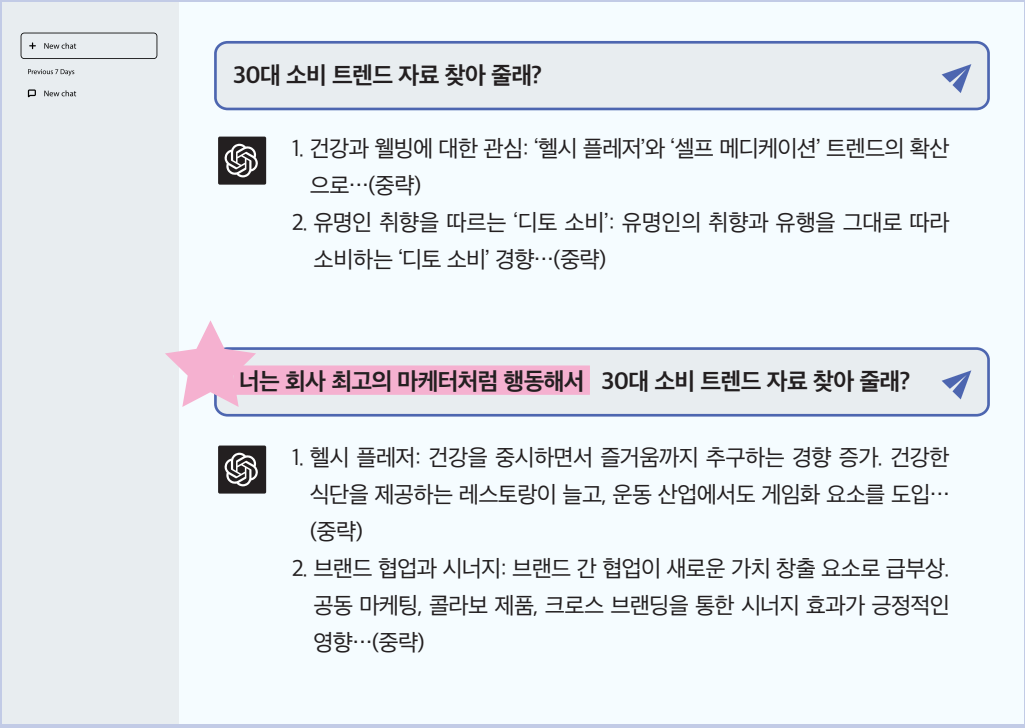


불과 1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AI가 어느 순간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업무에 있어 시간을 한 움큼 잡아먹던 일도, ChatGPT 같은 생성형AI에 질문(명령어 or 프롬프트) 한 문장만 입력하면 결과가 주르륵. 하지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퀄리티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선 업무에서 빠질 수 없는 ‘자료 수집’을 위한 생성형AI 핵심 키워드들을 준비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단어’들만 잘 활용한다면 두 번, 세 번 할 일도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을 높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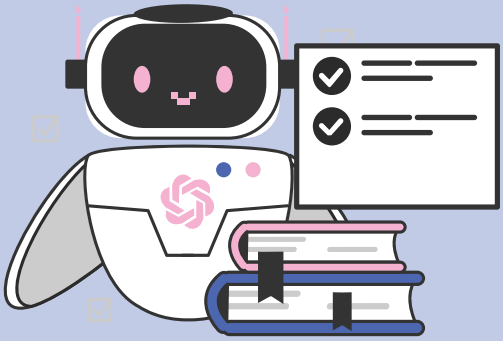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자면, 과연 AI는 '누구'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업무를 위한 질문 기술에선 중요한 물음이다. 전문 용어로는 '롤 프롬프팅'. AI에 특정 역할을 부여해서, 원하는 결과에 가깝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맛있는 커피를 맛보기 위해 길가는 아무에게 주문하는 것보다, 바리스타를 부르는 게 더 옳은 것처럼 말이다.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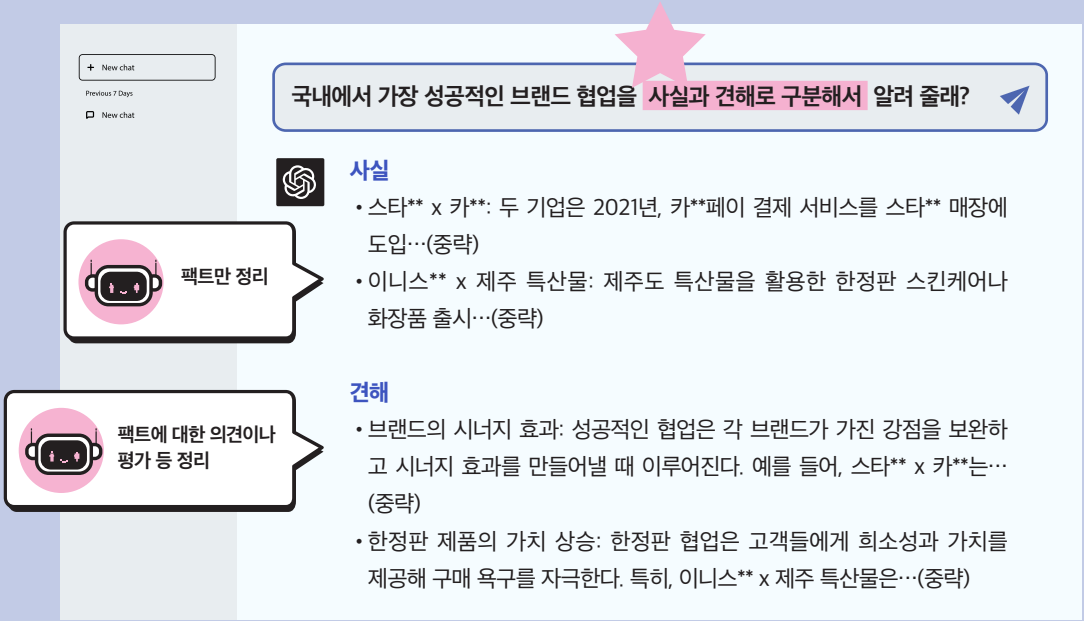
그냥 물어봤을 때는 개괄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지만, 역할을 부여하는 순간 해당 직무에 필요한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짚고, 사용하는 언어도 한층 전문적으로 변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AI는 자신이 그 누구도 아닌, 그저 AI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마케터다'라고 단정 지어 말하면 '전 AI인데요?'라고 답할 수 있으니, 배우가 특정 역할을 연기하듯 '~~처럼 행동해'하고 하는 것이 좋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순간

사실과 견해



AI의 답변을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됐다. AI는 답변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추가해 정보 공백을 메우기 때문이다. 일명 '인공지능 환각현상' 쉽게 말해 최적의 답변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도록 만들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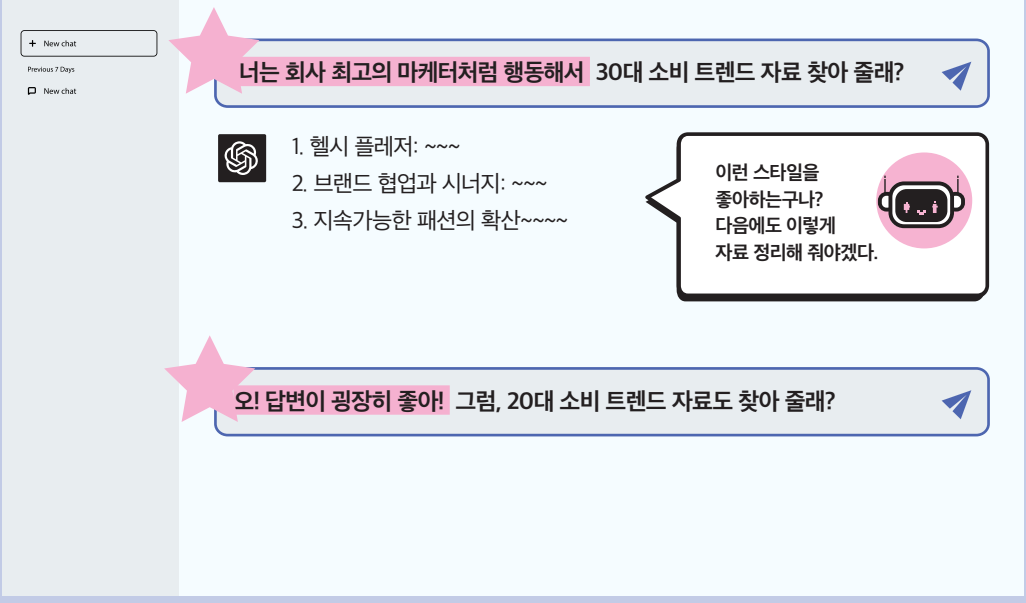


답변이 마음에 든다면? 꼭!

 # 칭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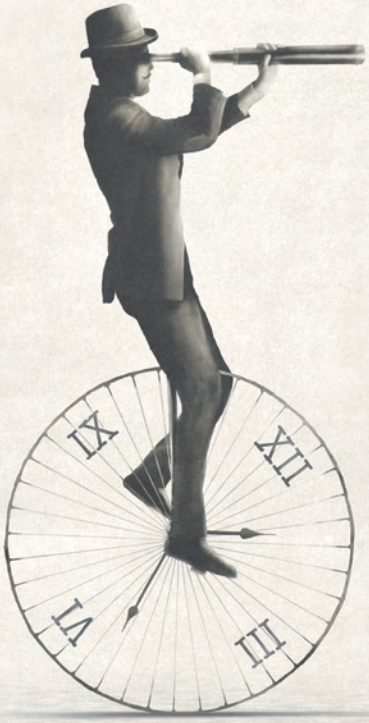


AI에게도 칭찬은 필수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좋고, 싫음을 캐치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처럼, AI에도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질문자가 어떤 성향과 스타일의 답변을 좋아하는지 학습하고, 다음에도 그에 맞춰 답변하기 때문! 하지만 AI는 우리의 표정이나 감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언어로 칭찬과 비난을 해야 하는 것이다.



Text. 편집실

굴러가는 삶,
균형을 잃어도 괜찮아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보자. 처음엔 한쪽으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점점 균형을 익힌다. 신기한 건, 완벽한 균형을 잡으려고 몸을 경직시키면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다. 가볍게, 유연하게 움직일 때 자전거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자동차의 타이어도 마찬가지다. 네 개의 바퀴가 각자 균형을 맞춰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길은 심술을 부리듯 평탄함을 거부한다. 때로는 움푹 팬 도로를 지나기도 하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대면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균형이 무너져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쩌면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중요한 건 길을 탈출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전체적인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관계가 정확히 50:50의 균형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때로는 한 사람이 더 힘을 쏟고, 또 다른 순간엔 반대가 된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치우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능력 아닐까?



"내 인생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난 빨리 그것을 채워넣어야 했습니다"
영화 <인턴> 中

균형에 대한 강박?! 자연스러움이 포인트

타이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건 분명하다. 자동차의 한쪽 바퀴가 지나치게 무거워지거나 닳아 있다면 방향이 틀어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비사들은 주기적으로 '휠 밸런스'를 맞춘다. 타이어가 네 개 모두 같은 속도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균형을 기대한다.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똑같이 주고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관계는 분명 오래가기 힘들다. 하지만 균형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도 오히려 관계를 경직되게 만든다.

영화 <인턴>에서 벤(로버트 드 니로)은 젊은 CEO 줄스(앤 해서웨이)를 돕기 위해 헌신적이다. 줄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기꺼이 조력자 역할을 맡고, 결국 줄스 역시 그에게 의지하게 된다. 이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완벽한 50:50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아간다.

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줄스를 변화시킨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던 줄스가 점차 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양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비틀즈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개인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이끌어 냈죠. 그게 바로 제가 비즈니스를 보는 방식입니다."

스티브 잡스 say



치우침이 때로는 더 큰 변화의 시작

우리는 흔히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일 때가 많다.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을 통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했다. 어떤 한 가지 상태(정, thesis)가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요소(반, antithesis)가 등장하고, 둘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상태(합, synthesis)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지만, 함께 일하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 유명한 사례가 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

잡스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이 원하는 제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감각을 가졌다면, 워즈니악은 엔지니어로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잡스는 완벽한 균형을 맞추려 하기보다, 오히려 본인의 강한 추진력으로 애플을 끌고 나갔다. 반면, 워즈니악은 기술적으로 흠결이 제로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등하거나 균형 잡힌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잡스가 너무 앞서 나갔고, 때로는 워즈니악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다. 하지만 그 치우침이 있었기에 애플은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혁신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쪽이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이후에 역할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균형과 치우침 사이, 중요한 것은 '유연함'

유연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한 명은 파블로 피카소다. 그는 단 한 가지 스타일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미술사의 흐름을 뒤바꿨다. 그의 예술적 여정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사실주의적 화풍을 따랐으나, 이후 청색시대와 장미시대를 거치면서 감성과 색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이후 조르주 브



"나는 항상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된다."

라크와 함께 입체파(Cubism)를 개척하며 회화의 형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피카소의 유연함은 단순한 스타일의 전환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예술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한 가지 방식에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와 개념을 탐구하는 태도는 그의 예술이 시대를 초월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한 가지 방식이나 역할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관계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때로는 리더가 되어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때로는 조력자가 되어 누군가를 지원해야 한다. 피카소처럼 변화에 열린 태도를 가지면,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

타이어 역시 같은 원리를 따른다. 도로가 항상 매끈할 수는 없다.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급커브를 돌 때, 혹은 돌출된 장애물을 넘어갈 때, 타이어가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차체가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이어의 탄성과 유연함 덕분에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노면에 적응할 수 있다. 자동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유는 타이어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적절히 흔들리면서 균형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단 하나의 역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응하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다. 피카소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고정된 틀에 갇히기보다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연결을 만드는 힘이다.

Text. 편집실

동료가 건네는 긍정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들려줘!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동료들과 소통하며 협업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최대한 상대를 배려하며 긍정적으로 대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 예의범절 한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삐죽삐죽 솟아나 있다. 이번에도 속마음 번역기를 돌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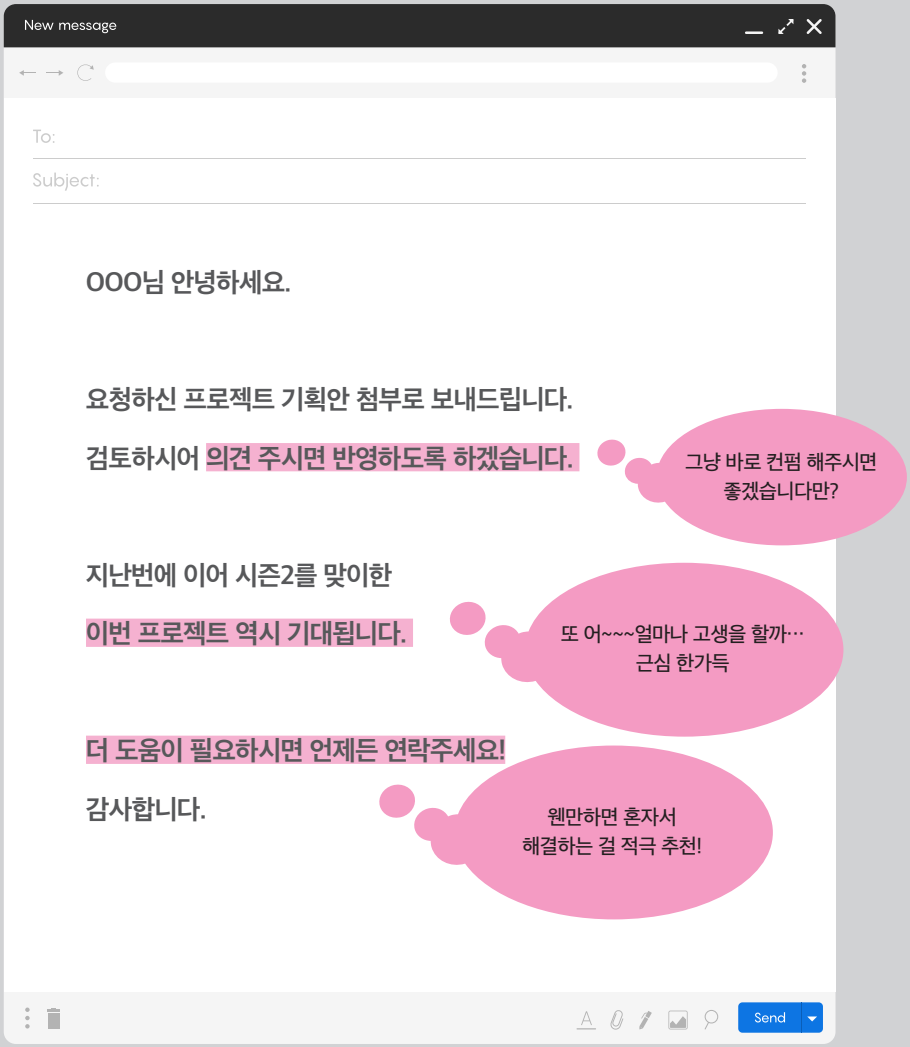
긍정의 말
속마음





회의 시간에 발동되는 은밀한 혼잣말

업무 중, SNS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순간은 단연 '회의' 시간이다.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물론! 준비하는 자료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취합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찰을 피하고자 최대한 본심을 숨기고, 말을 돌리고 돌려 '긍정어'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사실 그럴수록 싱싱한 해결책 근처에도 가지 못한 체 흐지부지 낭비되는 시간만 길어질 뿐!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직설적으로 말하자고 합의한 게 아니라면? 회의 중간~ 중간~ 동료가 말하는 위와 같은 말들을 귀담아들어 보자.



이메일에 적어둔 수수께끼의 진실

회의가 끝났다고 다가 아니다. 자료를 주고받고, 근거를 남기기 위한 이메일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은 멈추지 않기 때문! 이메일은 시간을 두고 작성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회의보다 긍정의 표현들이 더욱 도드라진다. 그만큼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은 더욱 꽁꽁 가려져 있다는 것! 마치 비밀스러운 수수께끼를 해독하듯 상대방의 메일을 유심히 살피고,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들과 잘 조율해 본다면 한층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긍정의 제스처 VS 부정의 제스처

동료의 긍정적인 언어 속에서 진심을 캐치하기 힘들다면? 걱정할 것 없다. 우리에겐 플랜B가 있으니까! 빠르게 흘러가는 대화에서 단어들을 캐치해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제스처를 유심히 보면 된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 속에는 알게 모르게 감정이 섞여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평소 신경 쓰지 않던 제스처도, 숨겨진 의미를 몇 가지만 알고 나면 동료와 소통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긍정의 제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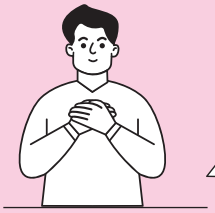
손바닥 보여주기

개방성과 솔직함을 나타내는 행동!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대를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다.



머리 위로 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은 승리나 성취를 나타내는 제스처다. 이는 자신감과 성공을 전달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유대감을 높이기도 한다.



손을 가슴 위로

손을 가슴에 대는 것은 진심을 나타낸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뜻!



대화 시작 전, 테이블 정리

테이블 위를 정리하는 행동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긍정적 태도다.

부정의 제스처



손으로 눈 질끈 가리기

방금 자신이 듣고, 보고, 알게 된 사실이 달갑지 않다는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행동이다.



귀 만지기 or 귓불 비비기

듣는 것의 핵심 감각인 만큼 애써 외면하고 싶거나 듣기 싫음을 표현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뒷머리나 목 긁기

나의 말에 동의를 못 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팔짱 끼기

방어적 태도나 경계심을 나타낼 때 흔히들 보이는 자세다. 상대방에게 닫힌 마음을 보여주며, 그만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ISSUE ①

‘WE: reBORN’ 2025년 시무식 개최

Text. 인재개발팀 김희진 책임 **Photo.** 이승우











지난 1월 2일, 넥센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2025년 시무식이 개최됐다. 이번 시무식은 신규 임원 소개와 공채 신입사원들의 소개 및 포부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강호찬 부회장을 비롯해 김현석 사장, 고형석 경영전략 BG장, 김대중 글로벌영업 BG장, 김철준 글로벌생산 BG장, 김종명 중앙연구소장, 구본형 경영관리 BG장, 오세인 Global건설단 BG장이 차례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강호찬 부회장은 "2025년은 'WE: reBORN(위리본)'이라는 키워드 아래, 새롭게 태어난다는 다짐으로 당면한 과업들을 실행해 가자"며, "이는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개인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사장 또한 "'WE: reBORN'이라는 키워드 아래,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BG 간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히 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2025년 목표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넥센타이어는 202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ISSUE ②

Text.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넥센타이어, 제6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6년 연속 결산 배당 및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지난 3월 26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47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갔다.

이번에 확정된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1주당 13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2년 연속 현금 배당액을 확대하며 주주환원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주가치 제고와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으며 배당 기준일을 주주 총회일 이후로 변경했다. 올해 배당기준일은 4월 4일이다.

이사 선임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CEO로 선임된 김현석 사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정수미 연세대 부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강호찬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고문(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홍용택 서울대 교수가 각각 재선임됐다. 이로써 넥센타이어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5인 체제로 감사위원회, ESG 경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현석 사장은 1990년 입사 이후 유럽 및 아태 지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은 물론 글로벌 OE(Original Equipment)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영업 전문가다. 또한 넥센타이어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정수미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회계학회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유럽 2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4년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고객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요약

NEXEN TIRE
we got you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

2조 8,479억 원 달성



주당 배당금
전년 대비

13% 증가



김현석 사장
등기임원 선임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ISSUE ③

신혼여행에서 부회장님을 만날 확률은?

Text / Photo. CP인사지원팀 박현아 사원



맨시티 홈구장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넥센타이어 광고가 포인트~

CP인사지원팀 박현아 사원으로부터 곱게 접힌 편지를 전해 받았다. 펼쳐보니 신혼여행에서 경험한 예상치 못한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 평생 기억하게 될 따뜻한 추억을 기록한 일기의 일부였다. 과연 그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24년 12월 26일

맨시티와 에버튼의 경기 관람은 신혼여행 마지막 일정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추웠지만, 경기장엔 수많은 축구 팬들로 붐볐다.

경기 관람 전에 유니폼을 꼭! 사야 한다는 남편의 뜻에 못 이겨 스토어에 들어선

찰나, 어딘가 익숙한 분이 계셨다.

바로 우리 부회장님. '우와~ 영국에서 부회장님을 뵙는다고? 인사를 드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용기 내서 "혹시 부회장님 맞으신가요…?"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맞다고 대답하시는 순간 너무 신기해서 소름 쫙.

해외에선 한국인만 봐도 반가운데, 무려 부회장님을 만나 뵙다니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마음은 부회장님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선물할 테니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 말해보라며…(1차 감동) 우리 부부는 맨시티 유니폼을

가지고 싶어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한 벌씩 선물해 주셨다.

그것도 함께 있던 친구 것까지…(2차 감동 ㅜㅜ) 부회장님은 헤어지면서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국땅에서 우리 직원을 만나 너무 기쁘다며,

창녕에서 한번 꼭 보자는 따뜻한 작별 인사로 잊지 않으셨다.

10년 넘게 회사에 다녔지만, 가까이에서 뵙고 인사드린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신기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영국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그날의 그 추억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선물 받은

유니폼을 볼 때마다 괜스레 미소 짓게 된다.

ISSUE ④

도전, 창의, 협력이 만든 제3회 퍼플어워즈 시상식

Text. 인재개발팀 김희진 책임 **Photo.** 이승우



지난 1월 2일 열린 시무식 행사 후에 '제3회 퍼플어워즈'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퍼플어워즈는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가 수행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여 '도전, 창의, 협력'이라는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번 퍼플어워즈 역시 첫 회와 마찬가지로 열띤 관심 속에 부문별로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었다. 한 해 동안의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시상하는 'Go, Best'와 아쉽게 실패했지만, 과감한 도전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담아 시상하는 'Try Again'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서류 평가가 이루어졌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BG별 다양한 직급들로 구성된 직원평가단 임직원들은 1~2차에 걸쳐 심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Go, Best'부문에서는 3팀, 'Try Again'부문에서는 2팀이 선정되었다. 비록 수상하지 못했지만, 접수된 모든 신청서 내용엔 각자 위치에서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한 임직원들의 피와 땀을 느낄 수 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사의 기준도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성과 및 과정 또한 양질의 퀄리티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퍼플어워즈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된다. 이와 더불어, 최우수 품질공장에는 청도공장이, ESG 우수 분과에는 SHE기획팀, 윤리경영팀 등 총 6팀이 선정됐다. 2025년도에도 넥센인의 도전과 혁신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THE BEST QUALITY PLANT
QINGDAO PLANT
5,000,000


Purple
ESG 최우수 분과
₩ 2,000,000
Purple
ESG 우수 분과
₩ 1,000,000


Purple
Try Again 최우수상
₩ 3,000,000
Purple
Try Again 우수상
₩ 1,000,000

ISSUE ⑤

따뜻한 사내 분위기를 만드는 ‘칭찬릴레이 캠페인’

Text / Photo. 노사협력파트 박경만 파트장





직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칭찬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서 휴게실 내 ‘칭찬 게시판’을 활용해 2주간 진행됐으며, 부서별·공정별 참여 인원을 고려해 YP 33명, CP 25명, 총 58명의 베스트 사례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칭찬상과 스타벅스 기프트카드(3만 원권)이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칭찬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다소 어색함도 있었지만,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YP·CP 베스트 사례 모음집을 별도로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으며, 지속적으로 칭찬릴레이를 시행해 사내 소통과 공감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만큼 앞으로 칭찬 한마디가 만들어 나갈 따뜻한 변화들이 더욱 기대된다.







YP설비보전1파트 지은배 사원

정련Shop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배들과 잘 어울리며 성실합니다. 평소 자질구레한 일도 묵묵히 잘 챙기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합니다. 2025년부터 교대조 근무에 들어간다니 지금과 같이 성실히 사수를 통해 공정설비에 대해 많이 배우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YP전기파트 김정한 조장

매사에 모범적으로 행동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선,후배들을 대하고 모든일에 솔선수범의 자세로 앞장서서 행동합니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현장의 설비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며 조원들과 항상 더 좋은 전기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YP품질검사팀 강신욱 사원

다들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항상 노력하고 꾸준히 자기관리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본받고 싶습니다. 조원들과 잘 지내는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강신욱 사원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CP정련파트 박상훈 조장

박상훈 조장을 칭찬하는 이유는 창녕 넥센타이어 설립이래 올해 최고의 체육대회를 준비 및 진행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인정하며 박상훈 조장을 칭찬합니다. 또, D조 조장으로서 공정의 대소사를 챙기는데 솔선수범하며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도 공정의 중간자 입장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온점 모든 부서원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기대 되기에 박상훈 조장을 칭찬합니다.

CP전기파트 김재영 사원

전기파트 김재영 사원을 칭찬합니다.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뿐만 아니라 평소 동료들을 잘챙기고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며 진심으로 도와 주는 김재영 사원을 칭찬합니다.
계신 형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행복한 회사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CP금형파트 박재성 사원

박재성 사원을 칭찬합니다. 항상 맡은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마무리하는 모습에 동료들의 귀감이 됩니다. 항산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ISSUE ⑥

넥센타이어와 함께한 ‘기안이쎄오’의 마지막 질주

Text. 인재개발팀 김희진 책임





전국 CEO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마련된 ENA의 예능 프로그램 <기안이쎄오>, 그 마지막 회에 넥센타이어가 출동했다. 기쎄오(기안84)와 김종민 이사, 이말년 주임이 넥센타이어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 이번 방송은 1월 30일에 방영됐다.

기쎄오를 비롯한 출연진들은 타쎄오(타이어 회사 CEO)의 고민인 ‘넥스트 성장 전략’을 찾기 위해 콘퍼런스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타이어 소음과 진동을 평가하는 무향실 방문에 이어 실차 평가, 직원 면담까지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거침없는 질주와 급제동, 급커브 등 다이내믹한 실차 평가 과정에서 기쎄오와 김종민 이사, 이말년 주임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은 큰 웃음을 자아냈다. 기쎄오와 이말년 주임은 CEO의 고민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상담하며 넥센타이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들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넥센타이어의 성장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승차감과 성능에 중점을 두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한,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그립력을 극대화하는 등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 장거리 주행과 고속 주행시에도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해 운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패턴 형상 유지 기술이 적용되어 50%가 마모되어도 패턴이 형상을 유지하며 타이어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공기 역학적인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도 높였다.

넥센타이어가 현대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플래그십 차량에 적합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넥센타이어는 SUV와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급은 넥센타이어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유수의 글로벌 카메이커의 타이어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와의 경쟁을 뚫고 팰리세이드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 성과"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원재료 적용 타이어 개발 박차



넥센타이어가 지속가능한 원재료 70%를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존 52%에서 크게 향상된 수치다. 상용화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2045년 친환경 원재료 100%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모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바이오 기반 재생원료 53%와 재활용 소재 재료 17%를 활용했다. 대표적인 지속가능한 원재료로 GPSNR(지속가능한 천연고무에 관한 국제 플랫폼) 가이드에 맞춰 생산된 천연고무, 바이오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재활용 PET 코드, 고철을 재활용해 만든 비드와이어와 스틸코드 등이 적용됐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입증했다. 국제인증기관 인증 장비로 측정한 구름저항계수는 5.11N/kN으로, 유럽 라벨링 기준 최고 성능 등급인 A등급(6.5 이하)을 충족했다. 구름저항계수가 낮은 것은 A등급 타이어가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CO_2)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넥센타이어는 지속가능 원재료 사용을 비롯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원재료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90여 종의 지속가능 원재료 적합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 12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에 AI와 VR 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 효율성 개선과 동시에 탄소 감축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VR 기반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을 결정했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금형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타이어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평가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2045년까지 100%를 지속가능한 원재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진출 희망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 전해



넥센타이어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를 전했다. 넥센타이어는 2월 17일 열린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 기업 체코 진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루카슈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대사를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체코 교역 및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 제조업 분야에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이 위치한 자테츠는 반경 400km 이내에 약 30여 개 카메이커가 위치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 유리하다. 또한, 한-체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게 최적의 입지라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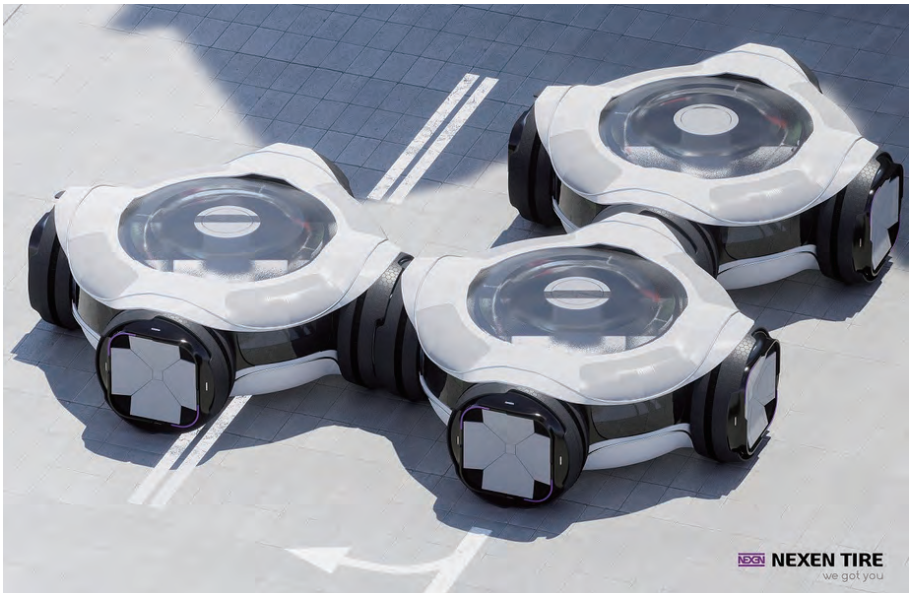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2014년 약 9억 유로 투자를 결정한 후 체코 자테츠(Žatec)에 부지면적 66만㎡, 연간 생산능력 약 1,000만 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현재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은 약 1,200여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해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를 유럽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은 친환경·자동화 설비를 갖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원재료부터 생산·품질·물류까지 전 공정 물류 자동화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품질관리시스템 인증(IATF 16949) 및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ISO 14001)을 취득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친환경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와 같은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 체코공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유럽은 2024년 기준 넥센타이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2019년 5,500억 원 수준이던 넥센타이어의 유럽 매출액은 2023년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조 1천억 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체코 진출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한-체코 협력 증진에도 공헌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이 2022년 6월 주부산 체코 명예 영사로 위촉되었으며, 부산에 체코 명예영사관을 개관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체코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며 "양국 경제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컨셉타이어 공개



넥센타이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KIDP)과 협업해 디자인한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컨셉타이어를 선보였다. 이번에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디자인은 마곡 '더넥센유니버시티'에 전시되었다.

넥센타이어는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완성차 업체, 모빌리티 자동화 시스템 개발 기업, 그리고 국내 주요 대학교들과 미래 컨셉타이어 제안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 활동들은 모빌리티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넥센타이어가 높은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에 협업한 KIDP는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 사업을 지원하는 국내 기관이다. KIDP와의 협력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창출하기 위한 양측의 공통된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기술적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미래형 컨셉타이어를 통해 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컨셉타이어는 기술적 진보, 디자인 미학, 친환경성,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비전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는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컨셉타이어는 회사의 진보적인 연구개발 현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창구로 활용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작품을 공개함으로써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

올해 프로젝트에는 국내 주요 대학에서 선발된 10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했으며, 6개월간의 협업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기술적 지식을 결집시켜 새로운 모빌리티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다.

이번 프로젝트 우수작품은 '도시 외곽과 중심을 순환하는 분리·결합형 대중교통'이다. 해당 작품은 미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며 운행할 대중교통 모빌리티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한다. 이 모빌리티는 사방에 장착된 타이어 휠을 통해 승하차 및 환승이 가능하며, 모빌리티 개체 간의 휠 탈착을 통해 자유롭게 결합과 분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진행 방향을 360°로 전환할 수 있는 옴니 휠 기술을 적용하여 모빌리티의 이동성을 극대화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젊은 인재들의 열정과 혁신적 아이디어는 넥센타이어의 기술 개발에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과 디자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제품 '윈가드 스포츠 3' 체험 행사 진행, 겨울용 타이어 기술력 강화



넥센타이어가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룽가우에서 최신 겨울용 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Winguard Sport 3)' 출시를 기념하는 겨울 주행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일간 유럽 주요 고객사와 언론 관계자 등 총 5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윈가드 스포츠 3'의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화된 유럽 기준에 맞춰 겨울용 성능 인증인 3PMSF 인증을 받은 신제품을 실제 도로 조건에서 테스트하며, 넥센타이어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참가자들은 '테스트 & 펀(Test & Fun)'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윈가드 스포츠 3'의 성능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윈터 드라이빙 파크 룽가우(Winter Driving Park Lungau)'는 해발 1,030m에 위치한 겨울 주행 트랙으로, 다양한 핸들링 코스, 넓은 다이내믹 존, 원형 트랙을 갖추고 있어 실제 겨울 도로 환경에서 타이어 성능을 확인하기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윈가드 스포츠 3'는 겨울철 주행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최신 겨울용 타이어로, 기존 제품 대비 눈길에서의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이 크게 개선됐다. 실험 결과 눈길에서의 제동거리는 기존 모델 대비 12%,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3% 단축됐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최신 컴파운드 적용과 트레드 패턴 개선을 통해 구현됐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작고 많은 트레드 블록을 배치했으며, 블록당 1~2개의 사이프(미세 홈)를 추가해 접지력을 강화했다. 또한, 최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트레드 패턴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실제 차량 테스트 전에 구조를 최적화해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해당 제품은 올겨울 시즌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대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유럽 겨울용 타이어 기준에 맞춰 기존 제품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동시에 겨울용 타이어의 핵심 기능인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을 크게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로 앤어워드 2024 그랑프리 수상



넥센타이어가 디지털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를 통해 앤어워드 2024 디지털 광고·캠페인 및 콘텐츠 부문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앤어워드(Awards For New Digital Award, A.N.D. AWARD)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후원하는 국내 디지털 분야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디지털 산업에 이바지한 작품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업계 최초 방문 장착 및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광고 홍수 시대에 소비자들이 광고의 피로도를 덜면서도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는 '타이어'와 '사이코메트리'를 결합한 용어로, "타이어를 만지면 그 타이어에 담긴 과거의 사연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코믹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넥센타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약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방문 장착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타이코메트리의 중심에는 넥센타이어의 혁신 서비스 '넥스트레벨'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초기 비용 없이 매월 렌탈비만 부담하면, 계약 기간 동안 프리미엄 보증 혜택과 함께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 과실이나 조기 마모로 인한 파손 시에도 무상 교체를 제공하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해, 연간 계약 건수가 15만 건에 달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튜브 숏폼 콘텐츠를 시작으로 공식 채널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넥센타이어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알리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르꼬끄 협업 테니스화 공개, 타이어 기술 적용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르꼬끄와 협업해 고성능 퍼포먼스 테니스화 'LE COURT ADVANCED(르 코트 어드밴스드)'를 2월 26일 공개했다. 'LE COURT ADVANCED'는 넥센 그룹이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을 적용해 신발 아웃솔(신발 바닥 부분)의 성능을 높인 테니스화다. 넥센타이어와 ㈜넥센이 협업해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고성능 아웃솔 컴파운드(타이어의 여러 원재료가 결합된 고무 복합 소재)를 개발했으며, 르꼬끄가 아웃솔 디자인 및 구조 설계를 담당했다.

테니스화는 코트에서 빠른 방향 전환과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내마모성과 접지력이 중요하다. 이는 무거운 하중과 높은 토크를 견뎌야 하는 전기차 타이어의 요구 조건과 맥락을 같이한다. 넥센 그룹은 타이어 기술력을 신발 아웃솔에 적용해 테니스화 성능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넥센은 신발 아웃솔 관련 특수 컴파운드에 대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80여 년의 역사를 보유한 넥센타이어는 R&D를 통해 타이어의 내구성, 접지력, 소음 저감 등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강한 접지력과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컴파운드 개발에 AI기술을 적용했다. 이러한 넥센타이어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타이어는 운전자에게 최적의 주행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LE COURT ADVANCED'는 전국 르꼬끄 매장과 공식 온라인 몰을 비롯해 무신사, 29CM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HELLO NEXEN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인재개발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테크
BEST

COMFORT

LONG
MILEAGE

승차감의 새로운 솔루션

N'FERA Primus AS T1

타이어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베스트 타이어!**

롱마일리지 사계절 타이어 엔페라 프리머스 AS T1, 이런 고객님들께 추천합니다.

- **장시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
- **고속주행**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
- **엔페라 신 명품보증제도**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선택!

효과적인 열 배출

물림된 기술 적용으로 효과적인 열 배출을 통한 뛰어난 고속주행 안정성 강화 및 마모성능 향상



저소음으로 편안한 승차감

최적화된 피치 배열을 통한 소음 제어 및 우수한 승차감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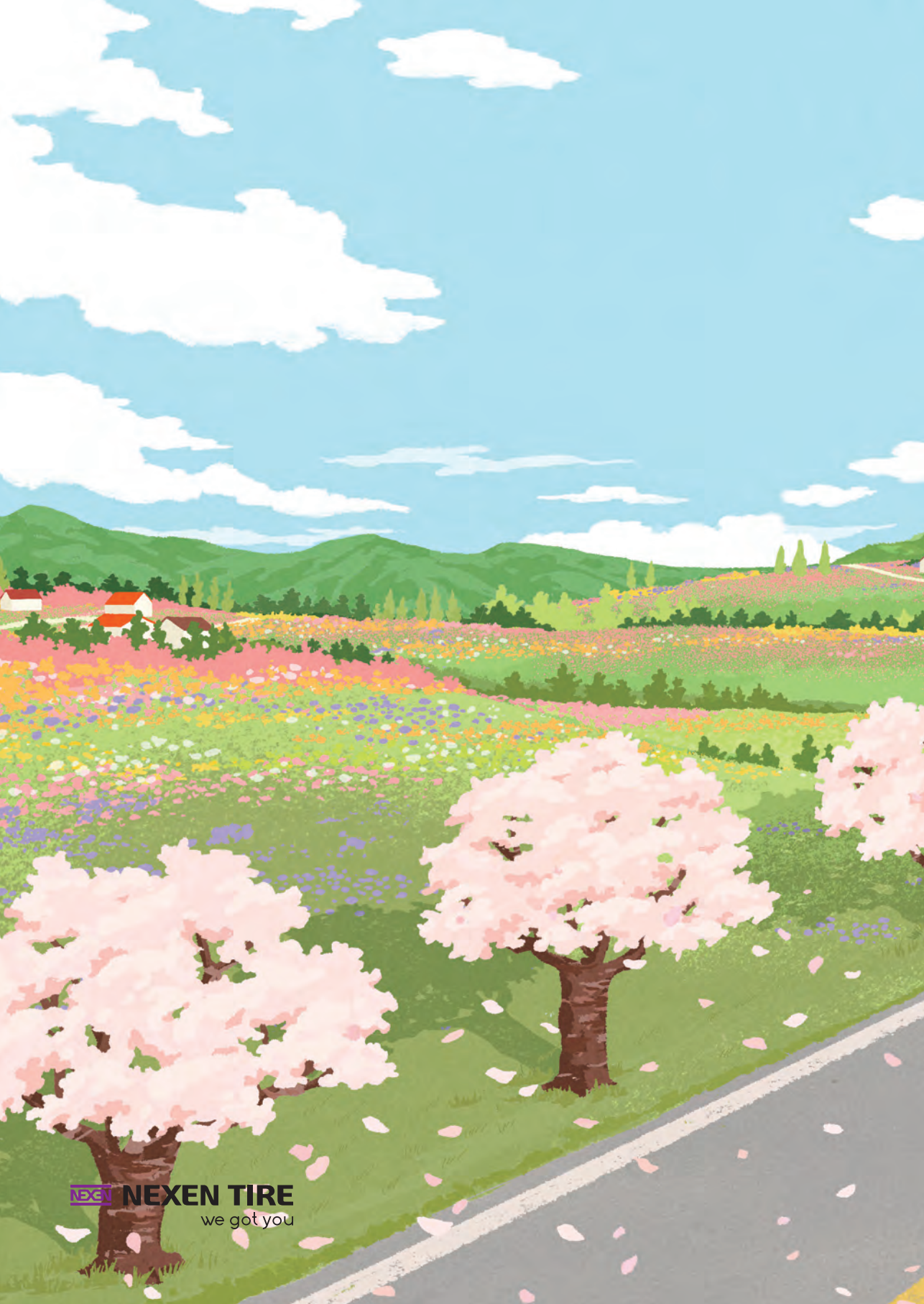




유려한 디자인

사이드월 부 유려한 써클 웨이브 기법으로 제품의 컴포트 속성 구현

NEXEN TIRE


NEXEN TIRE
we got you